



1967年 10月 4日 公보부등록 라-932

성도의 빛 11



영감의 멧세지

하워드 더블유. 헌터

(12사도 정원회)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음의 복음이 아니라 행동의 실천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의 복음은 명령의 복음이고 그 복음의 본질적인 특성은 행동에 이르게 되는 부르심입니다. 예수께서는 내 복음을 「지키라」고 하시지 않고 그것에 「좃아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복음이 지닌 그 아름다움을 새겨보고 상상해 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가라, 행하라, 보라, 느껴보라, 주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명령으로 가득차 있고 결의와 행동……의무, 구속, 강제를 요구하시는 말씀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강한 목적의식이 선행되지 않고 성취되는 일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행동에 옮기기 전에 이유가 있어야 되고, 진정한 목표와 목적에 도달하는 행동에는 지표가 있어야 합니다. 구원과 진보의 계획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복음이란 원시안적인—참으로 영원한 목표이기 때문에 오늘과 어제와 내일할 수 있는 짧은, 즉각적인 목적으로 세분하여 달성시켜 나가야 합니다.

복음이란 생활 방식입니다. 그것은 실제적이고 쉽고 간단한 것입니다. 그것은 행동의 복음이고, 생활의 예술을 이루는 짧은 나날의 행위 바로 그것입니다.

제 4 권 제 11 호

순 서

1968년 11월호

권두언 : 인생에 있어서의 유혹 데이비드 오. 맥케이	1
물론 유모어	2
총관리역원의 새로운 담당 선교지역	3
조지 롬니형제에게 정치를 묻다 조지 롬니	4
관리 감독단 페이지 : 경건 존 에이취. 반덴빅	7
상호 부조회 : 자매님에게 드리는 조언 엠마 레이 릭스 맥케이	9
나는 어떻게 상호 부조회에 들어왔는가? 렉신 에저	10
주일학교 : 불멸을 향해 영혼을 키우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11
지혜롭게 권능을 위임하는 방법 에즈라 테프트 벤슨	13
청소년편 : 어떠한 방법으로 살 것인가? 버지니아 마우잔 카미어	18
상호 향사회 : 향사회에 대한 신문기자의 평	21
계보 : 신전기록 색인국	23
클리츠로우 이세의 별세를 애도하며	25
선교부장 멧세지 : 들으라 서 현보	26
내외소식	27

어린이 성도의 벗

제인과 자전거. 공작실.

<연속 탐정소설> 나비단의 비밀 제2회

1967년 10월 4일

공보부 등록 라-932

발행일 1968년 11월 1일
(통권 제 40호)

발행인 : 배 일 문

편집인 : 홍 무 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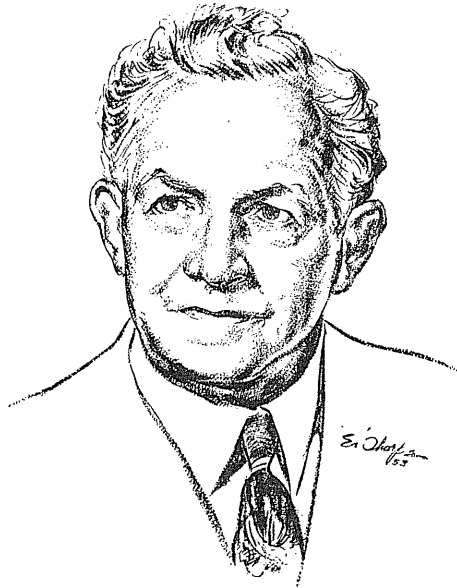
번역 : 한국 번역 출판부
(T. S. D.)
전화 73-5331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한국 선교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210호

인쇄소 : 삼화 인쇄 주식회사

정 가 : 50원
1년 구독료 (우송료 포함)
국내 450원
국의 선박 5불, 항공 7불

이달의 표지 : 솔트레이크 신전 광장의 방문자 센터에 있는 틀발센의 「그리스도 주님이신 구세주」라는 작품이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조각과 아름다운 배경은 구세주가 계시는 광활한 창공을 함께 견고 싶은 우리들에게 영감을 주는 멧세지가 아닐 수 없다.



인생에 있어서의 유혹

대관장 데이비드 오. 맥케이

인간은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지상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현세는 시험을 받는 기간입니다. 유혹이란 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지상에 있는 우리 생활의 일부이긴 하지만 시험받는다라는 것이 유혹에 굴복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세주께서는 온 세상, 각처의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모범을 보여 주셨고 특별히 그의 교회의 회원은 그 분을 우리의 이상으로 마음에 새겨 두어야 할 것입니다. 구세주께서 칭찬을 받으신 직후 유혹의 산으로 알려진 산으로 이끌려 가셨습니다. 저는 예수께서 제셨던 곳이 어디인지, 40일 동안 금식한 곳이 어디인지, 또는 금식을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산에 계시는 예수에게 성경이 말해주는대로 유혹하는 자가 나타나 구세주에 있어서 가장 약한 점이라고 생각되는 곳을 치기시작했습니다.

그 자는 구세주께서 금식하신 뒤라 몹시 배가 고프리라 생각했습니다. 처음 유혹은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그 지방에는 유대인의 빵모양과 비슷한 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하신 이에게 그러한 유혹을 던져 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즉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다음 유혹은 허영심에 호소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성전 꼭대기에서) 뛰어 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에 구세주의 대답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였습니다.

사탄은 유혹하여 자기의 뜻에 굴복시키고 성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셋째 유혹은 재물욕과 권력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유혹하는 자가 예수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일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말하기를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하였습니다. 신성의 위엄을 보시면서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아와서 수종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4 : 9~11)

여러분의 가장 큰 약점은 곧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하고 여러분을 정복할 공격 목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약하게 만들면 사탄은 그 약점을 더욱 약하게 만들 것입니다. 사탄과 대항하십시오. 그리하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만일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을 유혹하면 또 다시 대항하십시오. 그리하면 사탄은 점점 약하게 될 것이요. 반대로 여러분은 점점 강하게 되어 드디어는 여러분의 환경이 어떻던지 간에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누가 4:8)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유혹은 어디에서 올까요? 유혹은 사회 집회, 정치, 사업관계, 고용관계에서 오게 됩니다. 유혹은 우리가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종종 오게 됩니다. 누군가가 항상 우리를 주시하고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주시하는 사람은 우리가 시험에 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표하고 있는 단체도 나쁘다고 속단해 버리게 됩니다. 유혹에의 굴종을 말없이 거절하는 것 이상으로 교회를 옹호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집회에서 다음 노래를 부릅니다.

주께서 날 보내시기 심히 원하시는 곳은
 높은 산 바다나 전쟁터 아널지 난 모르나
 내 모르는 좁은 길 가라는 주 음성 내게 들릴 때
 사랑하는 주여 원하시는 곳 가오리다 대답하리.
 산넘어나 바다나 끝은 길 어느 곳에나 주 원하면
 내 가리라 주께 대답하리니 주 뜻대로 되오리다.

의무를 수행하라는 고요하고 조그만한 음성이 들리거나, 하찮은 생각이 떠오르거나, 또 수행해 보았자 자신과 하나님 밖에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그 음성에 응답하는 사람은 그 일에 약속된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혹에 진다면 약해질 대로 약해져서 세상의 악에 물들게 됩니다.

악한 것을 철저히 없애버릴 수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유혹에 항거하고 사탄과 대항하십시오. 그리하면 사탄은 여러분으로부터 도망해 가버릴 것입니다.

물론 유모어

캘리포니아에 사는 어떤 젊은 부부는 찾아온 아주머니를 모시고 드라이브를 나갔다. 그래서 구경거리 중의 하나인 무화과나무를 손으로 가르켰다. 아주머니는 「무화과나무라구? 저건 무화과나무가 아니야.」 「정말 저건 무화과나무예요.」 하고 조카딸이 대답했다. 그러자 조카딸은 「그런데 어째서 무화과나무가 아니라구 생각하시지요?」 「응—」 하고 잠시 동안 머뭇거리다가 그녀는 대답했다. 「나는 방금 무화과나무잎은 저것보다는 클 거라고 생각했거든.」 (주: 대개 서양 사람의 나상 조각에는 커다란 무화과나무잎 하나로 치부를 가려 놓는다.)

남자가 예쁜 아가씨와 앉아 있으면 한 시간을 앉아 있어도 일분밖에 안된 것 같다. 그러나 그를 뜨거운 난로 위에 일분을 앉혀 놓아 보아라. 몇시간이나 되는 것 같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상대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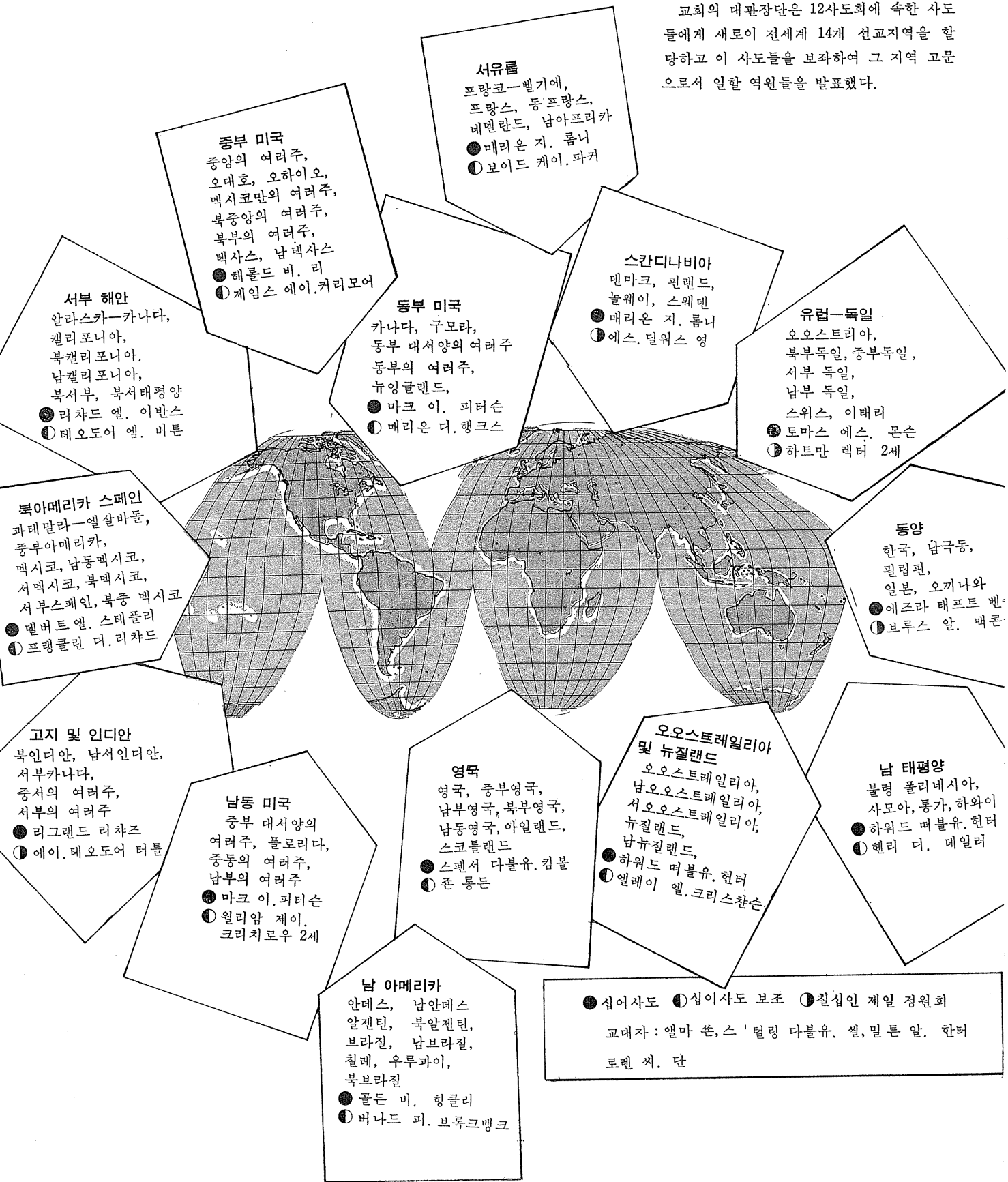
「타자를 칠 줄 아세요?」

「네 압니다. 저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른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찾으리라고 했잖아요?」

런던의 어느 파티에서 미국 사람이 예쁜 아가씨를 만났다. 얼굴은 익은데 도대체 생각이 나지를 않았다. 미국인은 아가씨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다시 만나니 아주 반갑군요.」 하고 말을 걸었다. 「안녕하세요?」 하고 그녀는 대답을 했다. 반응이 그리 대단치 않은 걸 보고 「모친께서도 안녕하십니까?」 하니 「네, 건강이 좋으세요.」 「오빠도 안녕하십니까?」 「아, 유감이지만 저는 오빠가 없는걸요.」 미국인은 당황해서 「아, 그럼 언니는 안녕하십니까?」 이 물음에 그 예쁜 아가씨는 웃으면서 「그녀는 여전히 대영제국의 여왕이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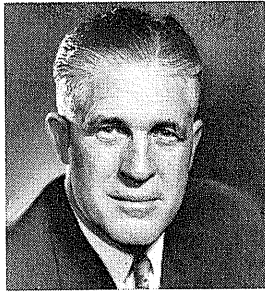
총관리 역원의 새로운 담당 선교 지역

교회의 대관장단은 12사도회에 속한 사도들에게 새로이 전세계 14개 선교지역을 할당하고 이 사도들을 보좌하여 그 지역 고문으로서 일할 역원들을 발표했다.



● 십이사도 ● 십이사도 보조 ● 칠십인 제일 정원회
 교대자: 엘마 쏬, 스 '털링 다블유. 셸, 밀튼 알. 헌터
 로렌 씨. 단

조지 롬니



형제에게 정치를 묻다

조지 롬니 미시간 주지사

말일성도들 가운데 미시간주 지사인 조지 롬니 형제보다 더 공적일에 대한 안목을 가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삼선 지사인 그는 그 전에는 아메리칸 모터스의 사장을 지냈으며 사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미국의 자동차 혁명을 지도하기도 했으며 그와 동시에 디트로이트 스테이크장으로 일했습니다. 또한 금년 초에 그는 공화당의 대통령 지명 후보이기도 했습니다. 널리 알려지진 않았으나 오랜 동안의 군복무와 인도주의적인 봉사로 인해 그가 받은 상은 기억할만한 것입니다. 시민의 책임에 관한 그의 생각은 펍 흥미 있는 것입니다.

문. 형제님의 경험으로 보아 교회 회원들은 오늘의 세계를 어떻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 저는 서방 기독교 문명권 밖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 거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반면에 저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일성도를 부지런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가난하고 능력을 상실해 버린 사람들에게 대해 큰 관심을 가진 것을 알고서 또한 그 도움받는 사람의 존엄성과 독자성을 손뚱만치도 건드리지 않고서 구호해주는 실현성있는 계획을 가진 것을 알고는 교회와 회원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많은 사람이 우리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네들은 우리가 지닌 복음의 원칙이나 신념에 대해 명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와서 사람들은 우리가 편협한 사람들이며 인종차별 주의자들이 아닌가하고 의심하고 있으며 특히 흑인들을 흑인이 아닌 개개인과 비교시켜 열등하게 취급할 뿐 아니라 절대자와의 관계에서 조차도 열등하게 취급하고 있거나 않은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저는 교회 회원들로부터 자주 편지를 받고 있습니다만 제가 펍 불안한

것은 편협한 마음을 보여주는 쓸데없는 질문의 편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편지가 교회 극소수 회원의 견해이기를 바랍니다만 그들은 어느 정도는 편협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회원을 알게 되는 사람들은 좋은 인상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를 아는 것 이상으로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 세계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신앙의 부족입니다. 이는 혼란의 부족과 도덕의 타락과 가정 생활의 비정상, 개인 책임의식의 약화에 기인하며 또한 세상은 사람에게 생계대책을 주게 마련이며 사람들은 아무런 희생없이도 보수를 얻을 수 있다는 태도가 커가는 데도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면에서의 타락은 인종차별의 생각마저 불러 일으켰으며 나는 이것이 오늘날의 세계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 시민으로서의 말일성도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 사람의 영적 생활은 사회적인 생활, 정치적인 생활, 또는 경제적인 생활과 떨어져서 마음대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말일성도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자기의 그 특별한 종교적 신념을 가지지 않았던 때보다 훨씬 더 큰 영적 개념과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활동을 가져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어떤 회원들은 교회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바쳐야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시민으로서의 의무는 소홀히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실이야말로 가능한 많은 회원이 교회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회원 각자에게 부담이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각가지 책임을 생각해 볼 때 그 으뜸가는 것은 교회와 가정생활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건전하고 훌륭한 가정 생활을 가능하게 하도록 존재하는 것이지만 교회와 가정생활에 충실한 것은 시민으로서의 할 일을 다하는 것입니다.

문. 어떤 사람들—말일성도들 중에도 있지만—은 정치를 오만한 사람들이나 하는 쓸데없는 것으로 취급하고 정치적인 동향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합니다만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정치활동은 자격있는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을 때만이 쓸모없는 것이며 위대한 원칙을 지니고 있는 말일성도들이야말로 쓸데없는 정치활동을 없애기 위해서도 정치활동에 참여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문. 복음 원칙에 위배되는 정치생활의 여러가지 상황에는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답. 나는 완전한 삶의 방식을 모릅니다. 아주 완전한 정치적인 실천방식은 없다고 할지라도 정치생활을 하는 사람은 자기의 지위를 활용해서 더 나은 실천 방식을 기대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제반 활동분야, 예를 들면 사업이나 사회적 활동이나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복음 원칙에 위배되는 실천방식이 정치생활가운데 있는 것을 못 보았습니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 한가지는 이것입니다. 신권회의 정원회나 보조조직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성도들은 권위를 구사하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정치활동의 분야는 말할 것도 없고 어떤 분야에서도 조직적인 활동진행을 통해 가장 훌륭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용해야 하는 도구 중에 가장 사용하기 어려운 도구는 권능이라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저는 권능을 사용하는데 있어 말일성도들 보다 더 나은 계시를 받으며 더 훌륭한 인도를 받으며 더 좋은 경험을 가진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문. 형제의 경험으로 보아 말일성도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섞일 수 있고 교회의 높은 표준을 낮추지 않고서도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쉽게 어울릴 수 있다고 보십니까?

답. 물론입니다. 사려깊은 사람들은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물론 예외는 항상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실을 압니다. 사람들은 「당신보다야 내가 더 거룩한 사람이지.」 하는 태도를 취하거나 자기 교회의 표준에 따라서만 비회원을 평가하려 드는 말일성도를 보면 분개합니다. 결국 우리들에게 도덕적인 일이 비회원에게는 도덕적이 아닐 수도 있고 우리가 좋지 않다고 하는 일이 그들에게는 좋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지는 일이 그들에게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회원들이 주위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때란 어느 때인가 하면 자기들에게 적용하는 표준을 다른 사람에게 까지도 적용시키려 드는 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디트로이트에 왔을 때 와싱턴에 있는 나를 아는 사람들은 위스키를 즐기고 담배를 애용하는 자동차 제조업자와 상대해야 하는 자동차 공업분야에서 출세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오? 하고 물었습니다. 물론 나는 자동차 공업분야에서 출세하는데 별로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피울 필요도 없었고 위스키를 마실 필요는 없었습니다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고, 또 그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그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지 않는 능력과 포용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내가 정계로 나갈 때도 그런 같은 이야기를 들었고 교회 회원들로부터 교회의 원칙이 아닌 모순된 일을 하려 한다고 비판의 편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접촉하는 사람들이 제가 도마도 주스나 레몬수를 마셔도 마치 자기들이 그런 걸 마시는 것 같이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네들은 그것 때문에 노여워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문. 선거기간 중에 또는 당신의 정치적인 활동에서 이웃인 말일성도들의 행동이나 태도때문에 곤란을 받은 일은 없었습니까?

답. 회원 개인의 태도나 행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때는 없었습니다.

대개의 경우 그들은 협조적이었고 교회 회원들도 참석한 정치적인 모임에 내가 참석해 보면 일반적으로 그들은 스스로를 무척 잘 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회원들 중에는 자리를 함께한 비회원이거나 또는 우리 무리가 아닌 사람들을 소홀하게 이야기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내가 경험한 문제 중에서 정치적으로 주되는 문제는 어떤 것이냐 하면 인종 문제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를 비회원이 확실하게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순전히 우리 말일성도들이 흑인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완전한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믿느냐는 것입니다.

문. 흑인 문제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 내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정책은 대판장 단으로부터 한 목소리로 흘러 나오며, 우리는 독립선언과 합중국의 헌법을 믿으며, 모든 사람들이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또한 사회적 불공평과 인종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한 나의 기록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사람을 판단할 때에 그 사람에 대해 여러사람들이 가진 인상 내지는 선입견으로서 할 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을 토대로 판단하기를 권합니다. 저는 흑인에 관한 교리문제에 휩쓸리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전세와 내세를 생각해 보지도 않고 또한 우리가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시킬 수 있는 우리의 교리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으면서 흑인 문제에 관한 교회의 교리를 토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순간 종교적인 논쟁은 대중적인 화제로 번져 나갈 것이고 우리는 그런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와 국가는 분리해야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문. 어떤 사람들은 미국 헌법을 만들도록 임명된 사람들에게 관한 계시(교리와 성약 101 : 77, 78)를 헌법 개정은 불가능하다는 계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당신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답. 저는 그 계시가 헌법의 변경이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변경이 필요할 때에 변경할 수 있게끔 규정한 그 조항이야말로 헌법을 그와 같이 위대한 문서가 되게 한 조항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변경에 필요한 절차는 헌법속에 쓰여져 있으며 이 변경에 관한 조항은 헌법을 기초한 선조들이 가졌던 영감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변화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리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날 분명히 우리는 새로운 성격을 지닌 광범위한 문제들을 대하고 있고 불평등과 부정을 바로 잡기 위해 헌법의 변경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변경은 평화적이고 질서있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 있고 그 방법을 헌법에 규정했다는 사실은 아무도 법을 침해할 권리를 가지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한가지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문. 미국의 사회적 불안을 어떻게 해결시킬 수 있다고 보십니까?

답. 간단히 말해서 사회정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사회질서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질서있는 평화로운 변화를 통해서 만인을 위한 사회 정의를 실현 할 수 있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문자 그대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그리고 피부를 초월해서 모

든사람들은 우리의 형제라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사회정의와 사회 질서를 위한 투쟁의 역군이 되어야 합니다.

미국사람이라면 누구도 법을 깨뜨려서는 안됩니다. 또한 인간의 존엄과 시민으로서의 완전한 자격을 부정해서는 안되며, 인종과 피부색 때문에 평등과 기회균등을 깨뜨려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교회 초기의 회원들이 노예제도 폐지를 위한 투쟁의 제일선에 섰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흑인과 그 밖의 사람들에 대한 불공평과 이등시민 대우를 폐지 하기 위한 투쟁의 제일선에 서야합니다. 분명히 현재의 사회적인 불안을 이용하려 드는 위험인물들이 있습니다만, 흑인이 미국의 위대한 이상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완전한 시민으로서 조속히 참여하게 되리라는 희망을 우리들이 포기하지 않는 한 그 자들의 노력은 그다지 위험한 것이 못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가 진실도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태복음 26 : 40) 하는 말씀과 물론정의 「이 모든 간악한 것들은 주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니 주는 인간들 가운데 선을 행하심이라. 또한 주는 법사를 인간들에게 간결한 뜻으로 행하시며 만인을 부르사 그의 선하심을 취하게 하시고 그에게로 나아오는 자면 검거나 회거나 속박된 자거나 자유인이거나 남자나 여자이거나를 부인치 아니하시고 이교도까지라도 기억하시리니, 유대인이거나 이방인이거나 모두 하나님 앞에는 동일함이라. (니파이이서 26 : 33)

문. 당신의 정치적인 그간의 경험이 만족할 만한 유의한 것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 나는 그 경험이 아주 유의하고 만족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펍 끈기있는 분투가 필요한 활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의 전 생애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것은 나로 하여금 국내 문제와 세계 문제를 훨씬 더 잘 인식하게 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나는 대중에게의 봉사를 위해 정치적인 투쟁을 겪으면서 자기 몸을 공공 재산이 되었다고 불리울 수 있을 정도로 희생한 분들에게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종류의 희생이란 대중에게 봉사하는 데서 오는 만족감 때문에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끝맺음에 있어 우리는 신앙, 교육, 노동, 협동의 중요성에 더 커다란 중점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고, 우리는 공공 생활에서 이런 것을 강조할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우리가 공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일에 완전히 성공한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보다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진실로 사람들은 말합니다. 모든 일은 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며 모든 행동은 마지막 심판대에서 평가될 것입니다. 우리의 두 눈이 승리를 보게 되던 분쟁의 와중에서 죽던 별로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젊은이에게 주는
관리 감독단의 말씀

경 건

존 에이취. 반덴빅 (관리감독)

옛날에 이스라엘과 수리아가 전쟁을 할 때였습니다. 수리아 편에서 아무리 작전계획을 비밀에 붙여도 이스라엘은 언제나 준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리아인들은 자기들의 계획이 항상 수포로 돌아가자 급기야는 자기들 병사를 지휘하는 자 중에 배반자가 있거나 않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이러므로 아람왕의 마음이 번뇌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의 내용이 된 것을 내게 고하지 아니하느냐? 그 신복 중의 하나가 가로되 우리 주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열왕기하 6: 11~12)

그리해서 수리아 군대는 즉시 예언자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으로 향했습니다. 밤이 되어 수리아 군대는 도단시를 포위했습니다.

엘리사의 젊은 종 게하시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밖을 내다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구머니나, 선생님 큰 일 났습니다.」엘리사도 밖을 내다보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그래도 게하시가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보고는 엘리사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주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그러자 주님은 젊은 종의 눈을 여셨고 종은 보았습니다. 산에는 온통 불마차와 불말이 가득한 것이었습니다. (열왕기하 6: 15

~17)

때때로 우리는 게하시와 같이 영적인 능력을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의 중요성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성장할 때에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눈을 열고서 복음의 영적인 중요성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통찰력의 부족으로 젊은 사람들 중에는 실제로 존재하는 영적 생활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통찰력과 이해력에 필요한 존경과 경건의 특질은 어떤 것입니까?

벡케이 대관장님은 경건을「사랑을 동반하는 심오한 존경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언해서 말씀하기를「하나님과 거룩한 일에 대한 경건은 위대한 영혼만이 가지는 첫째가는 특성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은 성공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경건심 없이는 절대로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자를 거룩히 여기며 절대자와 절대자와 관련된 모든 것에 경건심을 갖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하는 것입니다. (행복에 이르는 길 261페이지)

예언자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주는 바가 있습니다. 교회의 젊은이들이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이 교훈을 실행한다면 그야말로 커다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토마스 카알라일은 에딘바라 대학교 총장 취임식에서 행한 즉석 연설 가운데에서 피테가 쓴 빌헬름 마이스터의 여행기라는 책에서 얻은 의미 심장한 몇가지 사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사상들은 한결같이 경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현명한 사람이 셋 있었는데……」 카알라일은 말했습니다. 「그들은 늘 같이 지내면서 중요성에 있어 다른 모든 것을 능가하는 기능— 우리를 내리 누르고 우리 일이 진척될 때마다 우리를 방해하는 쓸데없는 일에서 벗어나게끔 젊은 세대를 키우는 기능에 대해 생각하고 조중하고 감독해 왔습니다. 셋 중에 제일 연장자가 빌헬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건강하고 박식한 아이들이 이 세상에 올때 여러 가지 귀중한 친품을 가지고 왔다네. 이 친품은 출생이래 별로 외부의 도움이 없이도 훌륭하게 발전한다네. 그런데 아이들이 가지고 오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없으면 다른 것들이야 아무 소용이 없네네.」 연장자 옆에 있던 빌헬름은 물었습니다.

「그것이 뭘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걸 원할거야. 아마 자네까지도 그럴 걸.」 연장자가 말했습니다.

「자아, 이젠 그게 뭘인지 가르쳐 주세요.」

「그건 경건이라네. 경건말이야. 우리보다 훨씬 위대하고 훨씬 선한 사람에게 바치는 경의, 두려움과는 다른 경건이라는 것 말이야. 경건이란 인간 세상에 있었던 그리고 앞으로 있을 모든 종교의 생명이라네.」 우리는 어찌해서 아이들 중에 아무도 세상에 경건을 가지고 오지를 못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 없이는 모든 다른 일이 쓸데없는 일이 된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벅케이 대관장님은 「경건은 힘을 상징해주는 것입니다. 불경이란 것은 약함을 뚜렷이 나타내 주고 있는 한 징조입니다. 거룩한 일을 비웃는 자는 누구도 위대한 자리에 오를 수 없습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건은 예언자께서 자기 자신 가운데 인격화한 미덕입니다. 그는 진실로 위대한 사람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경건에 대해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 그는 찰스 에드워드 제퍼슨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우리는 선천적으로도 후천적으로도 경건한 사람이 못됩니다.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우리는 점점 경건을 잃어가고 있다고 개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 지긋한 사람들은 분명하면서도 보기 아름다운 공손함이 없어져가고 몇년전까지만 해도 사람들 사이에 흔히 보이던 존경이 없어지고 있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광대한 미국 사회에서 경건의 영은 점차 추방되고 있습니다. 사회 각 계층의 남자와 여자들은 무척 영리하고 재미있고 재간이 있습니다마는 그들은 삼차원의 입체적인 생활에서 일차원이 부족합니다. 그들은 위로는 올라가지 못할 정도로 평면적인 생활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불빛처럼 반짝이지만 경박하고 무례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재치가 있습니다만 그 재치는 때때로 높고 거룩한 것들을 희생시킵니다. 그들은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는 선한 사람들이 고귀하게 여기는 것들조차 비웃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그같은 현대 개혁자들의 세계에 한 발을 들여 놓으면 우리는 곧 위를 향하는 시야를 가지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이런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은 굉장히 성실해서 세상의 우기는 악한 일들을 보고는 폭넓은 동정심을 가지며 뜨거운 열정을 가지기도 합니다마는 자기들의 머리 위에는 넓은 하늘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 어떤 사람은 나사렛의 예수를 존경하라고 외칩니다. 그들은 예수의 성품과 가르침을 칭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들은 예수의 경건은 흉내 내려고도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눈길에 늘 행했던 그 방향에는 흘깃 눈 한번 돌리기도 하려고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조차 경건이 부족한 것을 발견합니다. 어떤 사회에든지 하나님의 집을 마치 길거리를 달리는 전차와 같이 생각하고서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늘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조차 기도의 집에서 불경한 언동으로써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우리를 놀라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식한 사람도 아니고 교양이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다만 이런 사람은 경건이라는 미덕이 완전히 성장하지 못한 것입니다. (생활의 보배 262~3페이지)

그러면 경건이 왜 그와같이 분명히 타락한 상태에 빠졌을까요? 알렉산더 맥러렌의 이야기 중에서 우리는 대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금을 칠한 장난감과 유리구슬을 한웅큼 쥔 손아귀는 오래가는 부를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며 눈부신 불빛에 젖은 눈은 별이 보이는 보랏빛 하늘을 볼 수 있는 때에야 어둠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여러가지 형태의 악덕과 친하고 세상의 속된 일에 골몰함으로써 고상하고 바람직한 일에 대한 우리의 감각을 무디게 하고 있습니다.

악덕이라던지 세상 일에 대한 골몰이 경건심을 파괴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우리는 경건심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까? 벅케이 대관장님은 말씀하시기를 「기도로 충만한 마음은 우리 생활에 경건심을 가득 불러 일으킬 것이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건심은 그와의 진정한 연관을 맺을 때 생기게 됩니다. 훌륭하게도 젊은이들은 부지런한 연구와 진실된 기도를 통해 이와같은 진정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존 러스킨은 경건이라는 주제의 중요성을 지적해서 「모든 진정한 기쁨과 발전의 능력은 경건심으로 통하는 것들을 발견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을 열고 위대한 영적 생활을 실제적으로 얻기 위해 경건심을 가지고 행동할 필요를 분명히 느껴야 합니다.



자매님에게 드리는 조언



엠마 레이 리스 맥케이

맥케이 자매는 그녀를 개인적으로 잘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햇빛이었고, 희망의 빛이었으며, 사람들은 예언자의 아내인 그녀를 알고서는 스러져 가는 힘을 다시금 소생시키곤 합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그녀야 말로 누구보다도 아내와 어머니에게 충고를 줄 자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음이 기쁘고 밝은 날에나 그늘진 날에나 항상 그녀는 마음 가운데 깊은 의지를 잃지 않았고 행복을 잃지 않았읍니다. 다음의 글은 브리검 영 대학에 다니는 자매들에게 행한 이야기에서 뽑은 것으로 모두 말일성도의 자매들이 귀를 기울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상호간에 지녀야 할 태도

훌륭한 아내, 훌륭한 어머니가 지녀야 할 자질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 즉 오래 참음입니다. 자녀와 남편의 급한 성미를 참아야 하고 그들의 오류를 참아

야 하며 그들의 지나친 욕심과 행동을 참아야 합니다. 연애를 하면서도 여자들은 남자를 잘 이해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불화가 생기고 고민이 생기고 오해가 생깁니다. 여자가 남자들의 사랑이란 남자의 생활과는 어느정도 별개의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려고만 든다면 그는 흠없는 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자는 꺾이기 때문에 남자를 연구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남자를 잘 조정하는 것이야 말로 여자의 기술이며 의무입니다. 가정의 평화야 말로 여자의 책임이며, 여자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은 물론 친절, 사랑, 자기

희생을 늘 바쳐야 되며 협조적이고 봉사적이고 실제로 가장이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랑해야만 합니다. 남편의 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아내의 하고자 하는 바와 같은 것입니다. 여자들은 늘 지혜란 십분의 구의 침묵과 십분의 일의 간절한 말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찡그린 얼굴을 짓는다면 여러분의 주위에서 사람들은 떠나갈 것입니다. 자기 감정이 상했다는 것을 보인다면 틀림없이 찡그린 얼굴이 될 것입니다. 남편이 감정을 상하게 할지라도 열에 아홉은 무심코 그리한 것이고, 자기가 준 상처가 얼마나 큰지 모르고 한 것이라 생각하며, 우리 스스로 거칠은 말을 하지 아니하고 늘 웃으며 우리의 일을 한다면 모든 것은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상처를 약간 입을때마다 안달을 하고 법석을 떤다면 분노는 터지기 시작할 것이고 서로의 사이가 점차 벌어질 것입니다. 또한 한가지 분노와 싸움을 일으키는 것은 아내가 남편을 비평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결코 비평을 참지 못할 것입니다. 그 비평은 사랑을 질식시킬 것입니다. 말일성도의 결혼에 있어서는 신권을 소유한 남자가 가족의 으뜸가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보는 면전에서 남편을 알잡아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권능에 대한 존경을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남자가 가장이 되는 자리에 있다면 아내는 마땅히 가장으로서의 그를 존경하고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태도

애기가 두 세살 때부터 어머니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면 그 애기는 자라남에 따라 점점 애크를 먹이는 애가 됩니다. 애기를 다루는 방법 중에서도 가장 무익하고 해로운 방법은 겁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나 그 외의 어떤 것으로 폐지 않고도 일상 할 일을 당연히 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는 순종, 정직, 성실, 진리, 용기, 참된 권위, 그리고 예의로서 가정을 이끌어야 합니다. 각 자녀들을 똑같은 애정으로 대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자

너를 속여서는 안됩니다.

자녀들 서로간에 지닌 태도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락과 흥미로운 놀이가 꼭 필요합니다. 가정은 기쁨에 넘치고 화목해야 합니다. 소리가 나지 않는 집은 서글프고 쓸쓸한 곳이며 우울한 집입니다. 음악은 영감을 일으키며 악기에 쓰이는 돈은 낭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칭얼대는 아기 때문에

마음이 어수선했던 어머니들은 애기에게 부드러운 노래를 불러주면서 애기를 달랠 수 있습니다. 화평과 기쁨으로 애기를 키우는 기술은 또 다시 애기가 되어보는 기술이기도 하며 그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교양없는 가정이 모여 기쁨있는 나라를 만들지는 못하며 불행한 가정이 모여 기쁨의 나라를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상호 부조회에 들어 왔는가?

렉신 이거

삼 사년전 토마스 감독께서는 저의 집에 들리셔서 자기 사무실로 나와 주도록 부탁하신 일이 있습니다. 가족에게 잠깐 감독의 사무실에 다녀 오겠다고 이야기를 하니 열살짜리 딸이 「아이, 좋아라. 초등학교엔 아직 선생님이 없는데 틀림없이 엄마가 선생님이 될거야.」하면서 기분이 좋아 재잘거렸습니다. 머리를 다듬고 있으니 그녀는 자기반 회원들을 가르치면 무엇이 즐겁고 무엇이 어려울거라면서 한창 열을 내어 떠들었습니다. 내가 집에 돌아와 상호 부조회의 교사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한즉 딸아이는 시무룩한 표정을 짓고서는 「안돼요. 부인들은 이제 모르는 것이 없던데요.」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상호 부조회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라는 간증을 지금 현재는 지니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는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간증을 지니게 되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8살에 결혼했고 상호 부조회를 참석할 수는 있었으나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교회 조직의 일부이기 때문에 상호 부조회가 아주 훌륭한이라고 생각했고 그당시 복음의 진실성에 대한 간증을 가지고 있긴 했습니다만 두가지 이유로 저는 참석하기를 꺼렸습니다. 첫째로 저는 상호 부조회는 복지계획을 위한 재봉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다고 생각했으며 저는 바느질이나 누비는 일 따위 재봉은 기술이 없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둘째로 자매들 사이의 사회적인 유대관계는 그들이 작업하는 동안에 이루어 진다고 생각했습니다. 18살이라는 어린 나이로 저 자신이 별로 영리하다고 생각하지 못했고 조그마한 우리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대화로 삼을 만한 것들이 무엇인지 별로 알지를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해가 감에 따라 저는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더욱 적어졌습니다. 제 기억으로 저는 인생에 있어서 두가지 목표를 지녀왔습니다. 그중 한가지는 큰 식구의 자녀들을 성공적으로 키우며 가르치는 것이었고, 또 한가지는 가능한 많이 교육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결혼후 6년동안 저희는 축복을 받아 다섯 자녀를 가질 수 있었으며 다섯 자녀를 가지는 감격이야 말로 큰 것이

있었습니다만 저 자신을 교육할 수는 없어서 좌절감과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야간학교에도 거의 참석할 수 없었으며 집안 일 때문에 쓴 맛과 속박감을 느꼈습니다. 그 동안에 상호 부조회 교사는 매달 우리 집을 찾아와서 늘 모임에 참석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내심으로는 상호 부조회 모임에서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상호 부조회 회장님이 저희 집엘 찾아오셔서 저에게 모임에서 노래를 하나 불러주시기를 부탁했습니다. 저는 드디어 상호 부조회에 가서 제가 모르던 기회의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 모임의 반 지도자와 공과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고 거기에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저는 상호 부조회 잡지를 예약했고 공과를 듣기 전에 연습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배우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등골이 오싹할 정도의 기쁨을 느꼈습니다. 처음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서 저 혼자서 이기적인 목적으로 참석했습니다만 곧 저는 훌륭한 아내가 되고 훌륭한 어머니가 되게 하는 것을 배우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저는 저의 자녀들이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분야에서 끝내는 온전하게 되도록 가르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제가 훌륭한 어머니가 되어야 함을 전보다 훨씬 더 강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때때로 저는 이런 일을 알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하는 쓸데없는 걱정을 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배우고 싶다는 욕망은 더욱 커지고 저의 가족에게 유익한 것을 배우고 싶다는 의욕은 가속됩니다.

4년전 저는 저희 와드의 상호 부조회 회장단에서 일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의 가족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도 봉사하고 싶다는 열망은 지식에 대한 열망을 더욱 크게 불러 일으켰고 봉사하는 기쁨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저는 모든 말일성도의 자매는 상호 부조회에 참석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으며 그리하면 「요람을 흔드는 어머니의 손」은 강해져서 더욱 부드러워지고 늘 태산과 같이 굳세어 질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마음에서 울어나오는 신념이며 간증입니다.

주일학교페이지

교사의 책임

불멸을 향해 영혼을 키우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교사 여러분은 우리 자녀의 양부모입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것을 여러분은 믿어야 하고 반 회원들이 그것을 믿고 따르기를 열망해야 합니다. 이와같이 여러분이 씨를 뿌리고 자양분을 줌으로써 그 씨는 전능자의 앞으로의 솟씨대로 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반에 미래의 과학자, 위대한 조각가, 지도적인 정치가, 훌륭한 선교사가 있으리라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잔 트레보니어스는 평범하고 구풍에 젖은 교수요, 학교 교사였으나, 자기가 가르치는 소년과 소녀들에게 늘 존경의 태도를 취했다는 것을 읽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는 아이들이 말썽을 부리더라도 「내가 가르치는 생도들 중에 위대한 시인, 위대한 전도자, 철인이 나오리라는 것을 누가 알 수 있겠어요?」 하고 말하고는 했습니다. 과연 그의 학급에는 키가 자그마하고 뚱뚱한 장난꾸러기 말틴 루터가 있었고, 후년에 말틴 루터는 양심의 문제로 인해 보름스의 의회에서 고백했습니다. 「성경의 증거로서 그리고 명백한 이유가 있어 확신이 내게 오지 않는 한 나는 결코 나의 주장을 조금이라도 취소할 수는 없는 것이며 취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심을 거스리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며 무사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저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저는 결코 다른 길을 택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건전한 문학에 대한 취미

교사 여러분은 일주일에 한번 이상은 기회를 마련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깨끗하고 순수한 분위기에 젖게 하고 건전한 문학적 양식을 맛보게 해야 합니다. 그것은 후일에 그들의 손에 쏟아져 들어올 더럽고 지저분한 이야기들 즉 전능자의 이름을 더럽히는 책이라던가 또한 인생의 어두운 면을 적나라하게 그린 책이나 팜플렛들을 물리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 주위에는 너무나 많은 저속한 팜플렛과 책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책에 대해 작가인 제임스 엘 골든이 쓴 「젊은이와 그 문제」라는 책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어찌

해서 저속하고 사악한 것을 대표적인 것으로 선택해서 정신적인 양식이라고 문학작품에 쓰시기를 모르겠습니까. 혹자는 이야기 하더군요. ‘아 그게 바로 사실이 아니요?’ 작가 골든씨는 대답하기를 「자아, 뒷골목에 죽은 개가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아주 보기 싫습니다. 그것이 골목에 있는 것이 보기 싫다고 서가에 올려 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인간의 마음에 접근해 온 많은 문학 작품이 죽은 개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하는 문학작품으로서 죽은 개는 다시 살아나리라는 미련없이 빠른 시간내에 땅속 깊이 묻어 버려야 합니다.」

저는 교사를 사랑합니다. 저는 교사직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영혼의 벽들을 쌓음

교사가 불멸의 신전(영혼)을 짓기 위해 쌓는 벽들은 바로 진리라는 벽들이며, 덕이라는 벽들이며, 공과에서 이야기하고 또 당신이 감동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상이라는 벽들입니다.

공과라는 말은 배울 것, 가르칠 것, 또는 정해진 것을 뜻합니다. 저는 여기서 공과라는 것은 반회원에게 전달하기 위해 교사가 준비한 완전한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불멸의 영혼을 키우는 데 유익한 방법이나 소재가 있다고 하면서 공과와 관련된 몇가지 사실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내가 이상에만 치우친 사람이라고 생각치는 마십시오. 공과에는 교사가 늘 염두에 두어야 할 네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준비, 제시, 묘사, 그리고 실제적 적용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과 지도서를 읽으면서 젊은이 그룹을 위한 공과에나 노인을 위한 공과에 이 네가지 주요 단계를 잘 적용시킨 것을 보고는 얼마나 기쁘지 모르겠습니다. 준비에 있어 교사는 우선 책이나 지도서 없이도 상세한 부분까지 눈에 선하게 그릴 수 있는 정도로 철저하게 공과를 공부해야 합니다. 지도서에 쓰여진 공과 내용은 그 저자의 마음에 떠오른 것입니다. 그것이 저자의 것이지 교사 여러분의 것일까요?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그것을 읽어 준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도서에

쓰여진 것을 읽어 나갑니다. 그런 연후에 그 공과의 자료를 찾아서 자신의 공과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맑은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셔라.

언젠가 지도서를 가지고 「충성」이라는 공과를 준비하고 있는 여교사를 보았습니다. 공과의 제목은 「왕비 에스더」로서 훌륭한 공과였습니다. 지도서에 쓰여진 내용도 펴 좋았습니다. 하지만 교사는 공과를 읽고서는 그것을 덮어놓았는데 그 공과는 그녀의 공과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구약의 에스더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공과 준비는 마치 맑은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교사가 아하수에로왕과 모르드개, 왕비 에스더가 왕앞에 나아간 이유, 속박으로 신음하는 유대인을 걱정하는 모르드개, 그리고 하만의 악한 것을 저마다 생생하게 그릴수 있었고 이와같은 극적 이야기에 나오는 모든 사실이 완전히 교사의 것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교사는 그 위대한 왕비 에스더의 충성을 회원들이 그대로 느낄 수 있게끔 그 사실을 모아서 엮었습니다. 교사는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종이에 썼습니다. 그러자 그는 충성이라는 진리의 주제와 내용을 눈에 선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야기 제목을 뱃으로 나누었는데 그 각각의 제목은 반회원들에게 충성의 원리를 인상깊게 심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1. 히브리인의 머리 위에 떨어진 무서운 포고령. 이 포고령의 내용은 무엇인가? 여러분은 그 포고령은 사악한 자들이 어린 아이들을 죽이는 포고령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짧은 베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쓴 모르드개가 대궐 문앞에 와서 왕비에게 「이 무서운 포고령에서 우리를 구하게 하라」고 호소함.

3. 왕비가 곤경에 빠짐.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왕앞에 나타난다면 왕은 죽음을 내릴 것이다」 이것이 고대 페르샤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왕비 에스더는 「당신은 금식하고 기도하십시오. 나는 내 백성을 위해서라면 생

명이라도 바치겠습니다.」고 말했습니다. 이 얼마나 그림과 같은 이야기입니까?

4. 결과적으로 왕은 왕비의 위대한 인간 됬됨이와 그 아름다움을 알게 됬.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이리하여 공과는 교사의 것이 되었고 그녀는 전달할 메시지를 잘 알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심금을 울리는 공과를 준비하는 영입니다.

양부모

그 다음으로 그 교사는 공과 지도서에 눈을 돌려 공과를 생활에 적용시키는 방법에 대한 여러가지 제안을 얻을수 있었습니다. 학생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충성을 다합니까?

여러분은 나라의 법을 지킵니까? 여러분은 교사에게 충성합니까? 어떻게 여러분은 충성스러운 사람이 될수 있습니까? 이와같이 교사는 지도서에 있는 제안을 자기반의 각개인에게 적용시켜 그들로 하여금 생활가운데 충성이라는 개념을 뚜렷이 파악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공과 준비는 기쁨이 되며 정신과 영혼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각반에서 여러분은 교사로서 아이들과 젊은이들의 영혼에 진리를 가져다 줄 책임이 있으며, 이것이 곧 불멸의 신전을 쌓는 벽돌을 놓는 것입니다.

교사 여러분이 양부모의 역할을 맡아 젊은이들을 가르치는 특권에 대해 마음으로 부터 크게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불멸을 향해 영혼을 키워 나갈 영감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사들이여, 여러분의 부름은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부름에 충실하도록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실 것입니다.

11월 성찬식 전주곡

DELMAR H. DICKSON

11월 성찬식 성경 봉독



장년 주일학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요한복음 15 : 12)

유년 주일학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요한 일서 4 : 7)

지혜롭게 권능을 위임하는 방법



에즈라 태프트 벤슨

위임이라는 말은 널리 사용되는 말이며 보편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말하는 위임이라는 말은 뜻이 아주 다르고 더욱 중요하며 깊은 뜻이 있는 말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위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권을 통한, 그리고 신권에 의한 위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조직의 윤곽을 크게 정해 주시고 그 목적과 목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자세한 방법을 알려 주시지 않고 우리 손에 남기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상호관계와 지도자 훈련이 필요하며 책임을 지혜롭게 위임하는 여러가지 계획이 연구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는 이러한 지도자 훈련과 상호관계의 계획을 세우는 곳이 뚜렷이 있다는 것을 더욱 느낄 것이고 감사하게 될 것이며 그 훈련과 계획이 방대한 크기를 가졌음을 더욱 느끼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바울 사도의 아래와 같은 이야기에 감동을 느끼리라 생각합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감독과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에베소서 4:11~13)

지금 읽은 것은 우리의 할 일이고,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과 책임은 신권의 인도를 통해서 신권의 인도아래 이루어 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움직이는 주님의 조직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원하는 일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잘못을 저지르는 약하기 짝이 없는 그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강제나 강요 또는 위협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권능을 위임할 수 있으려면 효과적으로 영을 구해서 얻어야 합니다. 영이 없이는 결정이나 계획을 세우지도 못하고 허둥대기만 할 것입니다. 지혜롭게 권능을 위임하려면 주께서 아래와 같이 말씀하신 복음 전도에 필요한 영과 똑같은 영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 주는 너희에게 이를 묻노니 곧 너희는 어떠한 성직에 성임되었더냐? 성령 곧 진리를 가르치려고 보내심을 받은 보혜사로 말미암아 나의 복음을 전하는 직책에 성임되지 아니 하였더냐?

그러므로 진리의 영으로써 말씀을 받아들인 자가 진리의 영이 전파하시는 대로 받아들임을 이해하지 못하며 알지 못함은 무슨 연고뇨?

그러므로 전파하는 자와 받아들이는 자는 서로 이해하나니 둘은 다 덕으로 인도되며 함께 기뻐하느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은 빛이라. 빛을 받아들이며 하나님 안에서 끊임 없이 빛을 받아들이는 자는 받은 빛이 더욱 밝아지고 점점 더 밝아져서 드디어는 대낮이 되리라.」(교리와 성약 50:13~14, 21, 22, 24)

현명하게 권능을 위임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가르침이나 전도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기도로 충만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주께서는 교리와 성약 42장 14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로 이 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영은 신앙의 기도로써 주어지나니 영을 받지 못하면 가르치지 말라.」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이 없으면 권능을 위임하지 말라.」 이와같은 영으로 우리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주를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는 지상에 살고 있는 선하고 현명한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봉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책임의 위임, 도움이 될만한 교회 외부의 조직—여러가지 방법과 시도와 원칙이 시험되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방법, 시도, 원칙은 영과 더불어 작용할 때는 대단히 훌륭할 것입니다. 몇가지 예를 들어보면

1. 훌륭한 운영이란 권능을 위임하는 것이며
2. 임무의 일부를 위임함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직에 도움을 줄 것이며
3. 효과적인 운영은 타인을 통해 여러분 자신을 성장시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4. 권능을 위임하는 일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5. 감독자 한 사람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아랫 사람의 수는 시간, 거리, 능력의 한계, 일의 종류에 따라 제한되어 있습니다.

6. 권능과 책임은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만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책임은 위임할 수 없습니다.
7. 더 큰 일을 할 적당한 후보자란 이미 그 직책에 대해 훈련이 되어있는 사람입니다.
8. 권능의 위임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
 - 완전히 위임을 하지 않는 경우
 - 형식적인 위임
 - 대화의 길을 열어 놓지 않는 경우
 - 임무의 한계를 뚜렷이 하지 못하는 경우
 - 임무가 실증이 나게 하는 경우
 - 그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권능을 위임하지 않는 경우
 - 위임의 폭이 극히 좁은 경우
 -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지금 말씀 드린 것은 비지네스나 산업분야에서 얻은 경우 몇가지 지침에 불과합니다.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안에서나 밖에서나 권능을 위임하는 데에는 황금율의 영(복음의 영이기도 합니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공포는 커다란 자극을 주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독재권을 행사하는 데는 늘 공포를 씁니다. 이것은 그 반응이 대단히 빠릅니다. 그 대신 공포는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일의 능률을 저하시킨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는 부탁하는 것이 명령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결과를 낳으며 부드러운 감정을 갖게 합니다. 해야 할 이유를 말해 주십시오. 일이 되어 가는 모양을 눈여겨 보십시오. 지시한 것을 잘 할 때는 감사의 말을 아끼지 마십시오. 솔직해도 좋은 자리라면 신뢰의 말을 하십시오. 자기가 명령을 잘 못 했을 때는 그 일을 중지시키고 잘 못한 곳을 찾아내고 서슴치 말고 잘 못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말일성도는 자발적이며 자유 의지를 아는 일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마찬가지로 주를 사랑하며 주의 일을 아깁니다.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들에게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그 일꾼을 꾸짖어야 된다는 충동을 받더라도 결코 그렇게 하지는 마십시오. 다시 한번 시험해 보시고 질책 대신에 등을 쓰다듬어 주십시오. 세상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은 틀림없이 선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는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능을 위임하는 일에 성공하지 못하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주요한 이유 몇가지를 들어보면

1. 그들은 아랫사람은 임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2. 아랫 사람과 경쟁이 벌어지지나 않을까 두려워 합니다.
3. 신용을 잃지나 않을까 인정을 못 받지나 않을까 두려워 합니다.

4. 자기의 약점이 들어나지나 않을까 걱정합니다.
5. 일을 부여하고 필요한 훈련을 시킬 시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그들은 너무 게으른 것입니다. 위임을 잘 하려면 시간이 걸리기는 합니다. 그러나 긴 안목으로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길이고 성도들을 키우며 결과를 좋게 할 수 있는 길입니다.

권능을 위임하는 때에 그 사람들과 가까워 지고 그들을 성장시키고 필요한 충고와 지도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나의 아들은 책임을 위임하는데 있어 지켜야 할 여섯가지 중요 원리를 적어 보냈습니다.

1. 위임해야 할 일을 선택해서 위임받을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되도록 잘 짜야 한다.
2. 그 일을 할 수 있는 적당한 사람을 택한다.
3. 위임받을 사람을 준비시키고 고무시킨다.
4. 일을 부여하고 완전히 그 일을 이해시켜야 한다.
5. 완전한 독자성을 부여한다.
6. 감독자로서의 감독을 계속하고 고삐를 놓아서는 안 된다.

테오도어 루스벨트는 「가장 유능한 관리자란 하려는 일을 맡길 좋은 사람을 택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고 그 일을 할 동안에는 간섭을 하지 않는 자제력을 충분히 가진 사람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무리 유용하다고 할지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으로써 성경에 쓰여진 본보기와 가르침입니다. 이 본보기는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여기에 몇가지를 들어 봅니다. 성경속에는 수 많은 본보기가 있습니다.

세상의 기초는 위임된 권능을 통해 놓여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번 사람들에게 지상에서의 자기의 임무를 위임된 권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참된 그리스도 교회의 회복도 역시 권능의 위임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회당에 모인 유대인에게 그리스도는 자기가 아버지에게 권능을 위임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요한 6 : 38)

지혜롭고 능률적으로 권능을 위임하는 데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자기를 섬기는 지도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적어도 여덟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이 교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조직은 위임된 권능으로 구성된 뼈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지상에 계실 때 세우신 교회에서도 그러했고 오늘날의 회복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는 권능을 위임받은 사람이 지도자가

됩니다. 그가 지상에 제실 때 교회를 움직이는 데에 있어서 자기를 돕는 자로 12사도를 택하셨습니다. 그는 역시 70인을 부르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권능을 위임하셨습니다. 그의 교회에는 구경꾼이나 방관자는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왕국을 건설하는 일을 도와야 했습니다. 그들이 왕국을 건설하는 일은 마찬가지로 자기를 건설하는 일도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각 개인을 승영시키려는 목표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산위에서 모세와의 극적인 회전에서 주께서 선언하시기를 「보라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광을 가져다 주는 일 이것이 바로 나의 사업이요, 영광이니라.」 하셨습니다. (모세서 1:19)

예수는 모든 사람을 왕으로 삼아 영생으로 갈 수 있는 지도적인 지위를 쌓게 해주시려는 목표를 가지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이 끝난 그 밤에 사악한 임무를 진행하려고 어둠속으로 사라진 유다를 제외한 열 한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요한복음 14:12)

권능을 위임함으로써 그리스도는 개개인을 억누르려 하신 것이 아니라 높이려 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모든 남자와 여자는 자기에게 위임된 지위를 통해 장성해 가고 있습니다.

둘째로 권능을 위임함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그 임무를 평이한 것으로 느끼게 하지 않으시고 그 임무야말로 가슴을 울렁거리게 하고 대어 들만한 것이라고 느끼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날로 번창해가는 어부였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자기 직업을 포기하고 실교가나 선교사가 되라고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부름을 아주 흥미있게 행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그 부름이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 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 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좃으니라.」 70인에게 권능을 주시고 선교사로 출발시킨 때도 마찬가지로 예수께서는 그 임무를 아주 흥미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지만 예수께서는 자기가 맡기는 임무가 쉬운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출발할 때에 매우 현실적으로 말씀하셨으니

「갈짜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

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누가 10:3~4)
셋째로 책임을 주는 데 있어서 예수께서는 부름받은 자로 하여금 자기 임무를 완전히 알도록 이해시키셨습니다.

「성임을 받고서도 사도들은 얼마동안 예수와 함께 있으면서 자기들이 앞으로 할 일에 대해 특별한 훈련과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고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고 가진바 신권의 권능으로 일했습니다」(예수 그리스도 228페이지—탈메지 지음)

넷째로 그리스도께서는 권능을 위임받은 자들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하신 것과 똑같이 신임하는 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적어도 세번이나 그리스도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지지하는 말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도 자기가 그들을 신임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리고 위임받은 자들을 보내셨습니다. 한가지 예로서 그는 70인에게 「너희의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니……」(누가 10:16)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유능한 일꾼은 결코 혼자서 일하는 일이 없으며 자기만이 자격을 가졌다는 인상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권능을 위임하면서 위임받은 자로 하여금 완전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합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혼자서 모든 일을 하지 않도록 가르쳤습니다.

다른 점에서는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이드로가 준 현명한 충고를 들어 보십시오. 그는 현명한 권능의 위임 즉 모세의 어깨 위에 있는 짐을 가볍게 하고 다른 사람을 키움으로써 책임을 분담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가로되 그대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이뇨. 어찌하여 그대는 홀로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의 곁에 섰느뇨.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편을 판단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

그대와 함께 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쇠하리니 이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시도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재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이를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무릇 큰일이면 그대에게 배풀 것이고 무릇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담당할 것인 즉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그대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인가하시면 그대가 이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재덕이 겸전한 자를 빼서 그들로 백성의 두목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으며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배풀고 쉬운 일은 자단하더라.

모세가 그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 가니라.」

(출애굽기 18 : 14~27)

다섯째로 예수께서는 자기가 부른 자들에게 자기의 충성을 보이셨고 또한 그들에게 충성을 기대하셨습니다.

이 충성의 문제는 위대한 원칙입니다. 저는 수년전 필라델피아의 어느 호텔에서 하루 종일 농업 지도자와 실업가를 만났습니다. 저녁때 시원한 바람도 쏘일겸 편지도 몇장 부칠겸 밖으로 나가서 우체국 문으로 들어간즉 반대편에 있는 열린 창문에서 귀에 익은 물론 찬송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노상 전도를 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편지를 부치고 창문가로 가서 내다 보니 현관 계단의 한 구석에 검은 양복을 입은 두 젊은이가 서 있는 것이 확실히 보였습니다. 그들은 노래를 마치고는 한 사람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한 손에는 물몬경과 책자를 뱃권 들고 있었고 다른 손에는 모자를 두개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노상 전도를 마쳤을 때 저는 밖으로 나가서 책과 모자를 들고 있는 젊은이에게 「동료가 이야기하는 동안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지요?」 하고 물어 보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젊은이의 만족스러운 대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벤슨 형제님, 저는 그 때에 청중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올바른 것을 그가 얘기할 수 있도록 주께 기도했습니다.」고 말했습니다. 충성과 지지! 상호간의 지지는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아버지와 하나 되심을 열 한사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요한 14 : 11) 예수께서는 그들의 지도자로서의 자기에게 충성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요한 14 : 15) 그리고 나서 그 분은 자기의 충성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요한 14 : 18) 이어서 그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한 14 : 27) 훌륭한 지도자는 자기의 권능을 준 사람들에게 충성을 기대합니다. 마찬가지로 자기의 충성을 그들에게 줍니다. 또한 임무를 준 사람들을 뒤에서 후원합니다. 그리하면 부름받은 일 이상으로 충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지도자는 함께 일하는 자들에게 영광이 닦아왔을 때 역시 충성스럽습니다. 그는 그들의 성공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는 협의를 먼저 하지 않고는 상대방의 의사를 눌러 취소시키지 않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보는데서 절대로 동료로 당황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는 정직하여 늘 동료에게 대화의 문을 열어 놓습니다.

여섯째로 그리스도는 책임을 위임한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승천할 때에 예수께서는 열 한사람에게 「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 : 15)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우리 교회 지도자는 일반적으로 진심으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실천합니다. 권능을 위임할 때에는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지도자는 자기가 임무를 준 사람들로 하여금 일반적인 책임을 지는 때보다는 주를 섬기는 때에 더욱 강한 힘을 받게 됨을 확신시켜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면 주의 일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우리는 도구에 불과하며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여기는 그의 교회이며 우리가 가진 것은 그의 복음 계획입니다. 우리가 함께 일하는 사람은 그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할 일을 다한다면 그는 실패하도록 버려 두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우리의 재능과 능력을 크게 더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압니다. 여러분 역시 이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와같은 재능과 능력이 커지는 재미있는 경험은 인간에게 분명히 주어질 수 있습니다.

승천하기전 열 한사도와의 마지막 엄숙한 모임에서 그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사도행전 1 : 8) 하셨습니다.

존 테일러 대관장님은 「어떤 일이 훌륭하게 이루어지면 사람들은 그것을 하는 데 얼마나 걸렸는지를 묻지는 않고 누가 그것을 했는지를 묻는다.」고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는 그럴듯하게 걸치려만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유능한 지도자는 질적으로 우수하게 행하기를 바라며 임무를 준 사람들로 하여금 질적으로 우수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일곱째로 예수께서는 자기가 임무를 주어 보낸 자들이 돌아온 후 귀환보고를 청한 것 같습니다.

마가의 기록을 보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알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간 쉬어라 하시니……」(마가 6:30~31)

예수는 귀환 보고를 받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사려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기대했지만 결코 노예를 부리는 자와 같이 혹사 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뜨거운 간증의 시간이 끝난 후 그리스도는 사도들을 한적한 곳으로 청하시어 잠시 쉬게 하셨던 것입니다.

현명한 지도자는 훌륭한 생각이 모두 자기에게서 나온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가 이끄는 사람들에게 제안을 요청합니다. 그는 그 사람들 역시 결정을 내리는 일에서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느끼게 합니다. 이런 지도자는 그네들로 하여금 그의 정책이 아닌 자기네들의 정책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교회의 가정복음계획은 귀환보고를 요구하는 훌륭한 조직입니다. 가정복음 교사는 신권회의 지도자에게 귀환보고를 하고 신권회 지도자는 감독에게 귀환보고를 합니다. 스테이크 회장은 감독에게서 귀환보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해서 지도자는 여러가지 유용한 아이디어를 얻게 되며 자기가 이끄는 사람들의 의향을 늘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덟번째로 예수께서는 지도자는 자기가 책임을 위임한 사람들의 발전을 지켜보고 사랑의 영으로 칭찬을 하고 사랑의 영으로 꾸짖도록 가르쳤습니다.

재능에 대한 비유에서 주는 말씀하시기를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찌어다.」(마태 25:23) 하셨습니다.

책임을 줄 때 지도자는 책임을 받는 사람과 그 책임을 잊지 않습니다. 그는 흥미있게 살펴 보지만 지나친 간섭을 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할 때에는 적절한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도움이 될만한 격려를 줍니다. 일이 진행되고 있지 않아 새로운 조치가 필요할 때에도 지도자는 용기와 굳은 결의로서 행동하되 친절을 잊지 않습니다. 한 직분의 재임기간이 끝나 해임되면 그를 칭찬해주고 감사의 말을 잊지 않습니다.

때때로 비평을 받는 것보다 더욱 참기 어려운 것은 우리 자신이 부여받은 일에 대해 지도자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을 때입니다. 뜻이 깊고 특별히 도움이 되는 간단한 논평이나 평가는 늘 훌륭한 후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허락되면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그의 후계자들의 생애에서는 권능이 어떻게 위임되었는지 그 예들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형제인 여러분 즉, 훌륭한

감독, 스테이크회장, 선교부장 그리고 그외의 사람들의 생애에서도 그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일 중요한 영애의 한 권능의 위임을 이야기하고서 이야기를 끝내립니다. 영적인 것에 대치될만큼 훌륭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점에 관해서는 교리와 성약 121장에 쓰여져 있는 바 리버티 감옥에서 예언자 요셉에게 주신 주의 영적 말씀보다 더 감동적인 구절은 없습니다. 영적인 숭고함과 가르치기에 합당하며 하나님의 신권의 깊은 의미를 나타내는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라, 부름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도다. 택함을 받지 못함은 무슨 연고뇨?

이는 저희 마음이 지나치게 이 세상 것에 얽매어 있고 또 인간의 영애를 갈구함이며 이 한가지 교훈을 배우지 아니하였음이니

곧 신권의 권능은 하늘의 권능과 굳게 매어져 있어 뗄 수 없나니 하늘의 권능은 의의 원칙이 아니고서는 지배되거나 운용될 수 없다 함이니라.

이 권능은 우리에게 수여되는 것이니 이 또한 사실 이니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숨기려 하거나 우리의 교만과 헛된 야망을 채우며 조금이라도 불의하게 인간의 자녀를 지배하며 통어하며 강압하려 하면 보라, 여러 하늘은 스스로 물러가며 주의 영은 슬퍼하시나니 주의 영이 물러가면 그 사람의 신권 곧 권위는 아멘이니라.

보라 저는 깨닫기 전에 홀로 있게 되어 가시를 걷어차며 성도들을 박해하며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는 도다.

우리는 슬픈 경험을 통하여 이 사실을 배웠나니 곧 거의 모든 사람은 사소한 권위를 가지게 되었다 생각 하자 마자 불의한 지배력을 행사하려는 천성과 기질이 있도다.

이러므로 부름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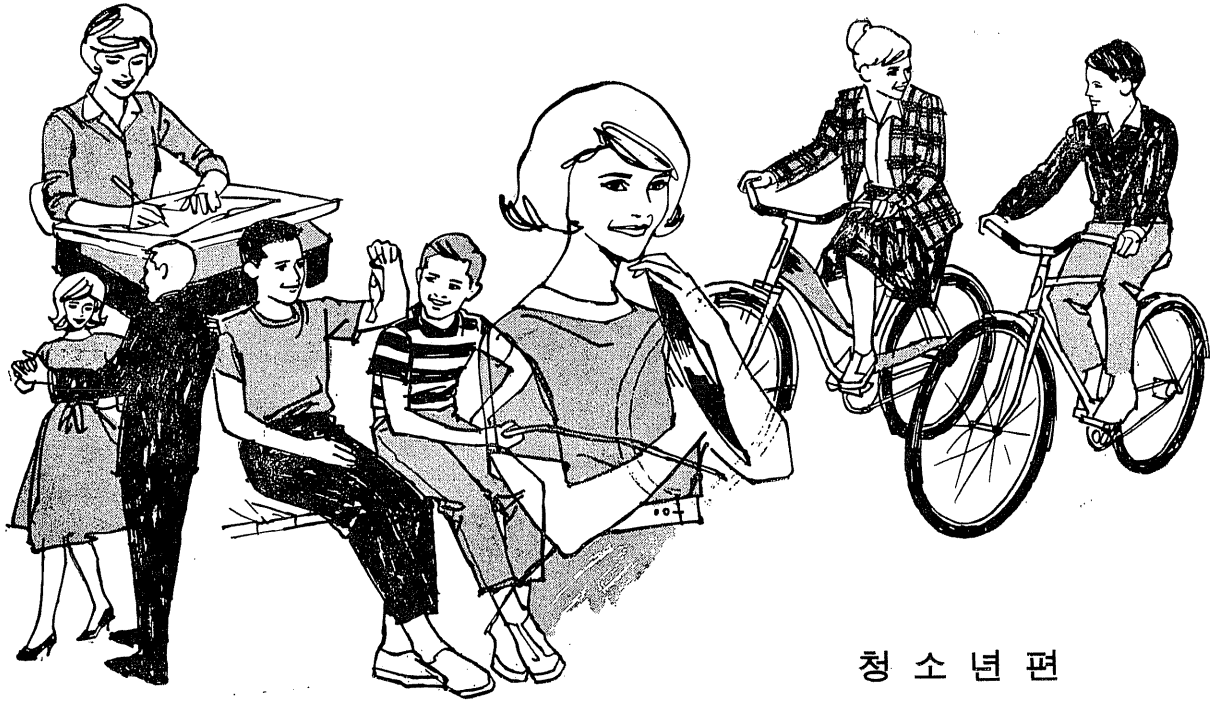
신권의 권능을 구실삼아 어떠한 권력이나 세력도 유지될 수 없고 또 되어서도 아니되나니, 다만 설득과 오래 참음과 온화함과 온유함과 거짓없는 사랑과

친절과 깨끗한 지식으로 할 것이니, 이것들은 위선이나 간교함이 없이 사람을 심히 크게 만드느니라.

성령에 감동되었을 때에는 즉시 날카롭게 꾸짖을 것이나 후에는 꾸짖은 자에게 더 큰 사랑을 나타내 보여 저가 너를 자기 원수로 여기지 않게 하라.

그리하여 저로 네 성실함이 죽음의 사슬보다 더 강한 줄 알게 하라.」(교리와 성약 121:34~44)

우리가 늘 아 충고와 다른 모든 성경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기를 빌고 성실하게 기도하는 중에 지혜롭게 권능을 위임하기를 빌며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청 소 년 편

못이 박힌 거친 손으로 그녀는 난로에서 콩냄비를 들어 내렸읍니다. 그 손은 밭일을 하는 손이었읍니다. 그러나 얼굴을 들자 그녀는 젊은 여자였읍니다. 「그 분이 말씀하신 면제라는 것은 무슨 소리예요?」 하고 그녀는 날카로운 어조로 물었읍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두 팔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었읍니다. 4월 대회에 참석하기 위한 솔트레이크 까지의 여행은 무척이나 피곤했읍니다만 가치가 있었읍니다.

그는 이마에 주름살을 짓고서는 생각에 잠겼읍니다. 제대로 남독시키는 것이 중요했읍니다. 「금년은 교회의 기초가 놓인 후 5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테일러 대관장님은 회년(유대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간후부터 매50년 마다의 해로서 여기서는 50년째의 의미)으로 삼아 모든 빛을 면제하는 해로 지키려는 거야. 구약 시대에도 그 사람들은 이 절기를 지켜서 노예를 해방시켜 주거나 그와 비슷한 일을 했던 모양이야.」

그녀는 테이블에 콩냄비를 내려놓고는 아버지 몫을 접시에 담았읍니다. 어린 아이 조셉과 벤자민은 벌써 밥을 먹고 잠자리에 들어갔지만 그녀는 아버지가 늦게 돌아오실 것을 알고는 음식을 따뜻하게 데워 두었읍니다. 「우리 종이 없잖아요?」 하고 그녀는 얼굴을 찡그리면서 이야기했읍니다.

「우리 그걸 다르게 해석해야지. 테일러 대관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는 대로 해 보겠어. ‘여러분은 가능한대로 빛을 진 형제중에 하나님께 합당한 형제의 빛을 면제해 주시요. 병든 나사르에게 겨우 상에서 떨어지는 빵부스러기만을 쫓아 먹게하는 부자가 우리 가운데는 없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 본보기로서 이민은 회원들이 내야 할 영구 이민 기금 80만불을 면제했읍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본보기를 따르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잠깐 웃었읍니다. 「우리에게 빛진 형제가 틀림없이 있지만 그 사람은 아버지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은 아니예요. 아무리 상상을 비약시켜도 우리를 부자라고는 부를 수 없지 않아요.」

「이 충고는 회원 모두가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야. 나는 애론슨 집안의 빛을 면제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해!」

어떠한 방법으로 ?

「아버지!」 그녀의 눈초리는 분노로 가득했읍니다. 「그렇게 안되요! 애론슨 집안은 이 세상에 있는 합당치 못하고 게으르고 무가치한 자들 중에서도 가장 나쁜 사람들이예요.」

「애 마사야, 주께서는 ‘너희 스스로 심판받지 않도록 남을 심판하지 말라’고 하셨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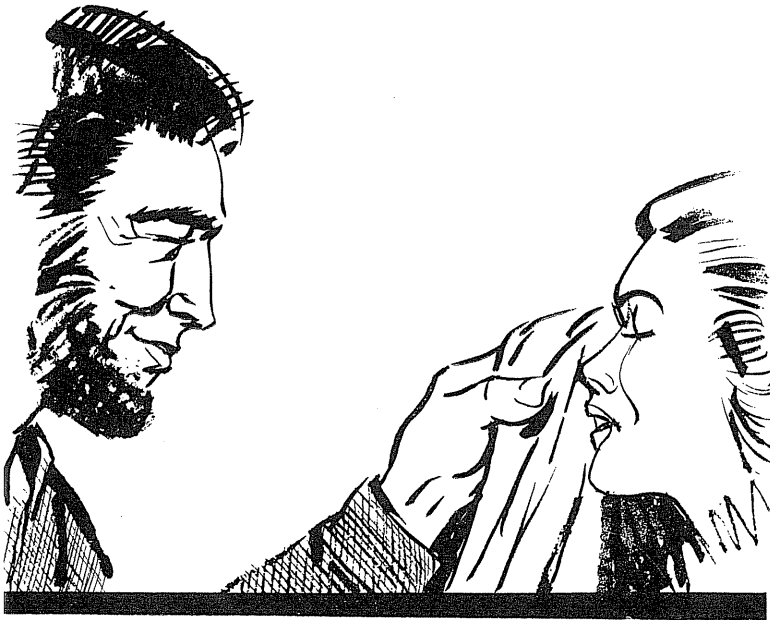
「심판하는게 아니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했을 뿐이예요. 그들을 8년동안 우리 땅에 살게 했잖아요. 그들이 자리잡은 땅은 우리 땅중에서도 제일 좋은 땅이예요. 그들은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대금 지불도 그렇잖아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주고 싶은 때나 주고 그때마다 어려운 때라느니, 완전히 지불할 수 없단느니 변명을 늘어 놓았어요.」

「어려운 때는 늘 있었지. 지난 여름의 가뭄에 여러 사람들은 여간 큰 고통을 겪은게 아니야.」 「우리도 마찬가지로 고통을 겪었잖아요.」 그녀는 아버지의 목에 매달려 흐느껴 울었읍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는 왜 항상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지나치게 친절해요? 그 사람들은 아버지를 이용하려고만 드는데 말이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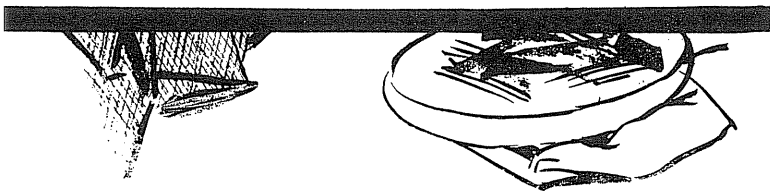
아버지는 그녀의 등을 두드려 주면서 부드럽게 이야기 했읍니다. 「자아, 자, 그건 어쩔 도리가 없는 일이야.」 아버지는 딸의 거친 손을 잡고는 못이 박힌 손가락을 비벼 주었읍니다. 「아가야 너의 어머니가 죽은 후 넌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 재미있는 일이란 조금도 없었지. 넌 너의 젊음을 나와 동생들을 위해 보냈지. 이제 좀 달라지겠지. 언젠가는 네게 갚을 수 있을 거야. 우리 언

덕 위에 집을 지을 수 있을 거야.]

언덕위의 집! 그것이야말로 말로 희망이었고 그녀를 그와같이 견디게 했던 힘이었습니니다. 다른 처녀들은 무도회에 가고 파티에도



버지니아 마우간 카미어



가고 젊은 청년들과 수줍어하면서 어울렸으나 그녀는 집에 박혀서 요리를 하고 세탁을 하고 청소도 하고 밭에서 일하시는 아버지를 도와 같이 일했습니다. 그들은 애른슨 집안에게 땅을 빌려주고 그 돈으로 새집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는 그 빚을 면제해 주려는 것입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커다란 손수건을 꺼내서는 딸의 눈물을 닦아 주었습니다. 「너는 우리 집의 주부이고 말할 자격이 있어. 난 네 동의없이 그 결정을 짓지는 않겠다. 하룻밤 자면서 그 문제를 생각하고 도움을 얻도록 기도하자.」 어머니는 복음을 택하기 위해 가진 것을 전부 버렸지만 결코 불평을 하는 일이 없었으며 고생스런 생활에 결국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개울가에 자그마한 오막살이를 지었고 그래서 어머니는 물을 길러 멀리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도 버린 집과 똑같은 좋은 집을 지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부부는 언덕위의 단풍나무 숲가에 집을 지을 자리를 정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 집을 가져보지는 못했습니다. 마사 역시 집을 가져보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건 나를 위해서가 아냐. 어린 벤자민을 위해서야. 의사는 마른 땅으로 집을 옮기면 벤자민이 그와같이 늘 후두염을 앓지도 앓을 게고 탄 병도 앓지

않을 거라고 말했거든.」 그녀는 거울에 보이는 상을 향해 열심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실망해서 머리를 떨구고는 슬픈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어갔습니다. 허나 그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아름다움을 갖고 싶고 쓸데없는 고된 일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어둠속에서 방 저쪽편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구석에 있는 가방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자팬더(향기 좋은 식물) 향기가 코에 풍겨왔고 그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노랑공단 웨딩 드레스랑 리본을 맨 편지랑 플라넬 천에 싸인 은으로 만든 찻잔이랑 향수와 같은 오래 전에 어머니가 남기신 물건은 모두 이 가방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엔 어려운 일만 더욱 닦쳤습니다. 어린 벤자민은 아파서 학교를 쉬어야 했습니다. 벤자민을 간호하기도 하고 다리미질을 하기도 하고 서둘러다가 급기야 그녀는 아버지의 제일 좋은 셔츠를 태워 버렸습니다. 다리미질을 끝내고 난 정오에는 아버지께서 들어오셔서 고용인이 그만두고 떠나버렸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아가야 정말 안됐구나. 네가 내일 마을로 가서 다른 사람을 구해야 되겠구나. 나는 오멜리 형제와 기둥 재목을 베러 험곡으로 가기로 약속을 했으니 너를 도와줄 사람이 없겠구나.」 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마치 일이 그렇게 된 것이 자기 잘못인 듯이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아버지. 제가 가겠어요.」 그녀는 마을로 가서 그런 일을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노동 소개소에 가야 하고 그렇게 되면 세상에서는 제일 거친 사람들과 상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생각이 옳았습니다. 그들은 고용인이 있어야 했습니다.

다음날 아버지가 오멜리 형제와 함께 떠난 후 그녀는 어린 조셉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 벤자민에게는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침대를 떠나지 말라는 다짐을 받고는 암말에 안장을 얹고 마을로 떠났습니다.

노동 소개소에서 그녀는 자기 차례를 기다리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주위에는 광부, 마부, 철도인부들이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야비한 농담을 주고 받기도 하면서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차례가 되어 그녀는 카틀러씨앞으로 갔더니 카틀러씨는 깜짝 놀라면서 「아니, 마사양이 여기에 웬일이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린 고용인이 한사람 있어야겠어요. 그전 사람이 가 버려서 아버지 혼자서는 안되겠어요.」

「아가씨뿐만이 아니랍니다. 저기 구석에서 친구들에게 욕을 하고 있는 체적이 큰 사람을 보십시오. 그가 바로 몬타나로 양식을 운반하는 운수회사 사장이랍니다. 그가 부리던 제일 기술이 좋았던 마부가 그를 떠났지요. 젊은 사람 조나 애른슨말이에요.」

「네에?」 마사는 정말로 놀란 건 아니었습니다. 애른슨 집안을 못 믿듯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카틀러씨는 지루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의 긴 대열은 아랑곳 없이 지겨워 대었습니다. 「네 그럼요. 그는 바로 얼마전 인사 한마디 없이 그만 두었어. 1000불이 넘는 급료를 전부 받아가지고 말이야.」

충격을 잘 가누지도 못하고서 마사는 「그 사람이 뭘 하려고 그러는지 알고 계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무얼 하지요? 젊은 사람이 1000불로 무얼 하겠니? 재미를 보면서 전부 날려 버리겠지.」

「카탈러씨 전 가 봐야 되겠어요. 고용인을 한사람 보내 주시겠어요?」 그녀는 급히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오늘 오후에 되도록 빨리 보내줄게」

말의 배에 무섭게 박차를 가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존 애론슨이 1000달러를 가지게 되었구나. 존은 애론슨 집안의 여섯 아이중 장남이어서 그녀의 나이와 비슷했습니다. 그녀가 기억하는 것으로는 젊은 듯이 보이는 청년이고 얇고 다 떨어진 옷을 입고 항상 늦게야 학교에 힘없이 걸어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18살때 그는 운수회사로 갔습니다. 힘에 겨운 거친 일이었지만 보수는 좋았습니다. 이년동안 그는 꼭 참고 일했고 이제 분명히 그는 자기에게 흥미있는 일을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녀는 화가 났습니다. 「그건 내 돈이야! 보잘것없고 너털한 그 아버지가 빚을 못 갚는다면 아들이 짚아야지!」

그녀가 집에 도착해 보니 어린 벤자민의 기침은 더 심해졌습니다. 그녀가 없는 사이에 이 끄마는 일어나서는 잠옷 바람으로 돌아다니며 놀았습니다. 그래서 이젠 낮기는 커녕 진보다 더 기침이 심해졌습니다. 그녀는 동생을 위해 겨자 덩어리와 박하차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높은 마른 땅에 좋은 집을 가졌으면 동생이 늘 아프지는 않을텐데」하는 생각을 백번도 더 한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겨자 덩어리를 동생의 가슴에 찰싹 붙여주었습니다. 「난 그렇게 할테야!」 그녀는 외쳤습니다. 벤자민이 조르는 것을 뿌리치고 그녀는 자기 방으로 달려가 문을 팽 닫았습니다. 분노로 떨리는 것을 꼭 참고 그녀는 펜과 잉크와 종이를 가져다가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조나 애론슨씨에게

저는 당신이 오버랜드 운수회사를 그만두고 많은 돈을 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도 아시겠지만 당신의 가족은 현재 살고 있는 땅에 대해 8년동안 임대료를 빚져 왔습니다. 당신의 부친은 빚진 것을 갚을 능력도 없고 갚으려고 들지도 않는 까닭에 도의적으로 보아 당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지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사 덕슨 그녀는 문간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조셉이 학교로 통하는 길에서 노는 것을 보고는 그를 불렀습니다. 「이 편지를 애론슨씨집에 가져다 주어라. 꼭 조나 애론슨에게 주어야 해.」

이튿날 그녀는 빨래를 널고 있다가 조나 애론슨이 집으로 오는 걸 보았습니다. 그는 그녀에게는 얼굴을 돌리지도 않고 계단위에 보따리를 놓고는 가버렸습니다.

편지도 없었고 현금 천팔라 돈통치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돈을 꼭 움켜쥐고는 집으로 뛰어 들어가 어린 벤자민을 꼭 껴안았습니다. 「벤자민! 이젠 우리는 언덕위에 집을 지을 수 있게 되었어! 그러면 난 나올게고 모든 것이 아름다울 거야!」 라고 외쳤습니다. 어린 벤자민은 놀라서 그녀가 노래를 부르면서 방안을 출추며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시는 걸 기다리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버지는 토요일 저녁에 돌아오셨으나 피곤한 듯이 보였고 몸이 좋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산악지대에서 심한 감기에 걸려서 그녀는 성가신 여러가지 일중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외의 나머지는 새 고용인에게 맡기고는 아버지를 곧장 침대에 눕혀드렸습니다. 「아침에 말씀드려야 되겠어.」하고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몇년래에 처음으로 아버지는 심하게 앓으셔서 주일학교에 갈 수가 없어 마사는 아버지 없이 동생들과 교회로 갔습니다. 모자를 쓰고 제일 좋은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자리에 앉아서 노래를 부르고 공과를 들었습니다만 시종 마음은 집에 있는 요 아래에 넣어 놓은 생각뿐이었습니다. 모임이 끝난후 감독은 문에서서 모든 회원들과 악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착하신 아버지가 어디 가셨지, 마사?」

「감독님, 아버지는 편찮으셔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거 안됐구나. 오늘 오후엔 일을 그치고 아버지를 뵈러 가야겠구나.」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아주 고마워하실 거예요.」

「오늘 아침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또 몇명 있어. 애론슨 집안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었어. 넌 그 이유를 아니?」

그녀는 왈카 얼굴이 붉어졌고 몇가지 이유로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와 그녀는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빵을 자르고 밀크를 준비하면서 아버지를 깜짝 놀라게 해 드릴 계획을 조심스레 짰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쟁반을 갖다 드리고 아버지가 나프킨을 들어 올릴 때 돈이 보이도록 했습니다.

「아가, 마사야.」

아버지는 부르셨습니다.

「왜 그러세요, 아버지?」 아버지는 무척 초조한 얼굴이었습니다. 「난 네가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애론슨 집안에 일이 생겼어. 너 그집에 가서 도와줄 게 없는가 보고와라.」

「무슨 일이에요?」

「애론슨 자매가 울면서 오늘 아침 건너왔더라. 그녀는 조나가 집을 나갔다고 그러더군.」

「그가 이유를 말하고 나갔대요?」

「아냐 그는 다만 ‘저는 떠나겠어요 다시는 안 돌아 오겠어요.’ 라는 한마디 말만 남겼네.」

마사는 목이 졸라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마 그는 운수회사로 갔을 거예요.」

「아니야. 그게 이상해. 그 아이는 할당전에 감독님께 가서 선교사가 될 수는 없다고 물었어. 그는 선교사가 될 목적으로 벌은 돈을 거의 다 저축했어. 그의 가족은 그런 그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겼는지 몰라. 그는 부름이 있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 그런데 그가 어디로 사라져 버렸더니 참 이상하던 말이야. 마사 너 그집에 건너가서 어떻게 애론슨 자매를 위로할 수 없겠니?」 그러나 아버지의 이 말에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도망치듯 자기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무릎을 꿇고는 그가 무서운 일을 했다는 것을 알고는 소리치며 울었습니다.

「주여 저를 용서하소서. 저를 용서하소서.」

멀리 사막에서 조나 애론슨은 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는 분노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는 고삐를 늦추고는 머리를 가슴 위에 떨구었습니다. 피곤한 말은 맹렬히 달리다가 걸게되니 좋아하면서 천천히 뚜벅뚜벅 걷는 리듬이 「그녀는 모를거야. 그녀는 모를 거야. 그녀는 모를 거야.」 하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고삐를 당기자 말은 섰습니다. 한참 동안 조나도 생각에 잠겨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방향을 바꾸어 오던 길을 되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난 돌아 가야겠어. 마부일을 또하나 얻어야지. 다시 돈을 모아야지. 그러면 언젠가는 내가 소원하던 대로주를 섬길수 있을 거야.」

몰몬 교회는 상향회를 통해 젊은 이를 선도하고 있다

유명한 신문사 종교담당 편집인이 밝히다

교회 회원들은 항상 회원이 아닌 사람들의 상향회 활동에 대한 인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유나이티드 프레스 인터내셔널의 편집주간인 루이 카셀씨가 솔트레이크시에서 거행된 6월 대회에 참석하여 상향회 집회와 활동을 참관한 적이 있었다. 다음 글은 유나이티드 프레스 인터내셔널을 통해 전세계에 공표한 그의 인상기를 발췌한 것이다.



1968년 4월6일자 토요일 데저렛 뉴우스에서 인용

12살에서 25살 사이의 몰몬청년들은 자동적으로 모두 상향회에 등록되어 참석여부에 불문하고 출석부에 기재된다. 모든 회원을 일괄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모든 상향회 활동에 등록된 회원의 평균 2/3가 참석하고 있다는 주목할 만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상향회의 정신과 명칭은 모두 그들이 유타의 대염호(그레이트 솔트레이크)에 새 「시온」을 건설하기 위해 가진 고초를 겪어가며 서부의 지친 들판을 부녀자들과 함께 횡단해야 했던 역사적인 몰몬 고난의 시절의 지도자였던 브리감 영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약 일세기전 정확히 말한다면 99년전에 브리감 영은 오늘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성년 층의 비행을 방지하는 최선의 방법은 건전한 활동을 통해 잡념을 가질 수 없을 만큼 그들을 바쁘게 활동하게 하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리하여 그의 주창으로 「무엇이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기 위한」 몰몬 소년 구함과 소녀 구함이 각각 분리 설립되었다.

몰몬들이 금주 금연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그들이 무용도 좋아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 사실 브리감 영도 댄스 심지어는

fiddle-playing 까지도 천박하다고 배척하는 가정에서 자라났다.

「우리 어린이들이 이러한 부자연스런 교육의 주인공이 되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무용을 즐길 수 있고, 음악을 연구하고, 문학서적을 읽으며, 나아가서 그들의 내면을 발전시키고, 자유를 구가하며, 마음과 몸이 억압되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대관장의 이러한 취지는 19세기 중엽이라는 견지에서 본다면 원시적인 안목이었지만 지금까지 물론 청소년 활동에 잘 반영되고 있다. 무용에도 민속무용이나 왈츠 뿐아니라 우아한 boy-girl Balloon dancing 은 물론 사교 생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어린 아이들은 상향회에서 무용을 무료로 배우고 성인들은 상향회나 와드의 모임에 참석하여 젊은이들을 후원해 준다.

금요일이나 토요일 저녁이면 솔트레이크시를 비롯한 전세계의 물몬들의 모임에서는 교회에서 주관하는 수백을 헤아리는 무용 모임이 개최된다.

교회에서는 예절의 기준을 마련하여 놓고 이를 강조하고 있다. 피상하게 몸을 비틀거나 어깨나 엉덩이를 지나치게 흔들며 잡아당기거나 하는 후라그나 구걸루 등은 무용에서 제외된다. 무용과 무용 사이 휴식 시간에는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위해 오락을 베푼다.

예쁘게 보일려고 애를 쓰는 물몬 소녀들은 「적당한 미니」라고 말할 수 있는 스커트를 입는다. (이러한 나의 생각은 스커트의 길이를 결정하는 데 아버지와 딸사이에 진지한 토의와 때로는 눈물겨운 타협이 따르게 된다는 어느 물몬 아버지의 말을 듣고 확신하게 되었다.)

젊은이들의 활동은 음악과 아마츄어 연극과 스카우트 활동 체육 등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물몬이 음악을 좋아하게 된 데에도 그들의 역사와 깊은 관계가 있다. 광야를 횡단하는 험난한 여행중에 물몬의 개척자들은 노래를 부름으로써 그들의 개척 정신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세계적으로 유명한 태버나클 합창단과 그외에 와드 음악 지휘자와 연습하고 있는 합창단이 7천여개나 활동함으로써 그들의 전통을 살리고 있다. 기악 역시 장려되고 있다. 모든 와드는 적어도 일년에 한번씩 젊은이들의 재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기악 연주와 성악 등 다양성있는 음악 제전을 개최한다. 내가 참석했던 축제에서 일품이었던 것은 스코트랜드 풍소와 의상이었다.

물몬들이 솔트레이크시에 도착해서 먼저 한 사업중의 하나는 시카고와 샌프란시스코 사이에서 가장 크고 훌륭한 극장을 지은 것이었다. 그 1862년 이후 연극은 모든 물몬 특히 젊은이들의 생활에 중요한 부분이 되어왔다. 물몬의 와드와 상향회에서는 일년에 일만여 개의 연극을 상연한다. 이 중에 많은 것은 의외에도 뮤지컬이다. 이들 중에서 내가 본 것은 순수한 아마츄어가 제작한 것이었는데 교회의 연극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것이였다.

물몬 교회는 미국내에서 소년단을 가장 잘 후원하는 교회이다. 이들은 전세계에서 가장 대규모의 소년단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928년 그들은 조금더 나아진 소년들을 위한 스카우트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전위대」라는 운동을 시작하였다. 이 운동은 5년 후에 국제 소년단에 채택되었고 이것이 오늘날 전 세계에 알려진 탐험대 스카우트 활동이라는 것이다.

상향회에는 운동 모임이 잘 조직 되어 있고 또 경쟁적인 면이 있으므로 잘 운영되는 운동 시험은 상향회가 물몬청년들을 장악하는 가장 큰 자석의 역할을 하고 있다. 각 와드는 나이별로 나눈 농구, 배구, 소프트볼 팀을 둘씩 가지고 있다. 그들은 리그전을 통해 우승자를 뽑고 우승 팀은 지역 결승전을 갖게되고 최종적으로 국제적인 대규모의 토너먼트를 갖게된다.

야구 토너먼트가 있는 솔트레이크시는 매년 봄이 되면 마치 월드 시리즈를 주최하는 도시처럼 흥분의 도가니가 된다.

이러한 광범위한 계획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많은 성인들의 시간과 지도력이 요청된다. 가정 복음교사, 주일학교 교사, 연극 지도자, 무용 음악 교사, 체육 코치와 보조자 등등 전형적인 물몬 교회는 한 와드에 약 250여개의 무보수 직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리고 회원들에게 그 직책을 맡아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많은 물몬의 성인들은 일주일에 15시간에서 20시간을 상향회 활동이나 다른 교회일을 위해 보낸다고 말하고 있다. 너무 많은 시간을 교회에 봉사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다른 기독교에서는 이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테너 부대관장께서 말하는 바와 같이 「우리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교회에는 구경만 하는 회원들이 없습니다.」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물몬에서는 가능한 것이다.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서 어떤 직책에서라도 일해 줄 것을 부탁하면 핑계를 대거나 변명하거나 기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의 요구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요청이라고 배워 왔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직책에라도 부르시면 진실한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의 대답은 ‘네’라는 것 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물몬은 자기들의 신앙을 성실히 지켜 나간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젊은이들을 교회로 가까이 하는 데 성공하는 비결인 것이다.

유명한 뉴스 기자에 의하여 쓰여진 앞의 글은 상향회의 영향력과 영감을 주는 상향회 순서에 교회의 모든 회원이 능동적으로 참여 하도록 고무해 주는 글이며 「상향회가 젊은이들을 교회에 가깝게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글이다.

신전기록 색인국

계보 위원회가 조직된 75년동안의 역사를 통하여 이 위원회에서는 전 세계 방방곡곡으로부터 수많은 계보에 대한 자료를 모아왔다. 기록들도 함께 모음으로써 수천명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족보를 찾아내게 되었고 자신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발견하게 되었으며 또 자신의 조상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수백만의 사람들이 조상을 위하여 신전사업을 하였음을 입증하는 6백만이 넘는 가족 단위의 기록들을 계보위원회의 문서국에 비치할 수 있게 되었다.

신전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조상을 찾는 계보자료에 관한 사업이 확대되어 오늘날에는 모든 나라로부터 온 수백만의 사람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사업에 종사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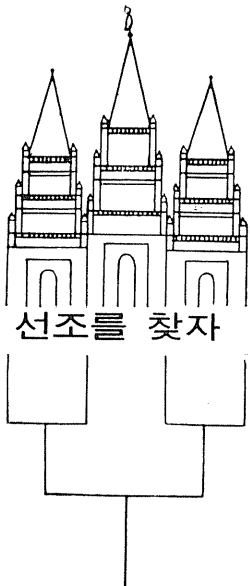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성도들은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이유로 탐구를 계속하고 있다.

우리들에게는 이 사업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필수적인 것이다. 또한 성스러운 신권의 진실한 장자 상속에 따른 가족인봉에 대한 영원한 진리인 것이다.

우리들의 신전 참석은 증가되어 왔고 이것이 결국 돌아가신 우리 선조들을 위한 사업을 더 많이 수행할 결과가 되었다. 이 증가와 더불어 (실은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맡기신 일이지만) 우리는 의식의 기록을 보관하고 있어서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며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예언자 요셉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혹 우리가 이야기 하는 바 땅에서 기록하거나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권능에 관한 교리를 극히 대담한 교리로 여길지 모르나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시대를 통하여 볼때에 주께서 어떠한 사람 또는 어느 집단에게 실제로 계시로써 신권의 경륜의 시대를 주실때에는 언제나 이 권능을 부여하셨느니라. 이런 까닭에 이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행하고 또 참되고 충실하게 행하고 그 일을 올바르게 성실히 기록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위대하신 여호와와의 정하신 명령에 쫓아 땅과 하늘의 율법이 되며 어떠한 자도 이를 무효로 할수 없도다. 이는 성실한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다. 그 누가 이를 듣지 않을 수 있으리요.」 (교리와 성약 128 : 9)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전 사업은 충실하게 주님의 신전에 기록되며 이렇게 해서 이 계시에 따르게 되는 것이다. 우리 계보 위원회에서도 하늘 나라의 공적인 기록은 아니지만 성도들이 중복하여 조사하는 것을 피하도록 하고 주님의 집에서 수행된 사업의 정확성을 알 수 있게 도와 주기 위하여 성실한 기록을 한다. 이것은 기록 보관소에 들어가는 가족 기록서에 뿐 아니라 조그마한 가로 3 세로 5인치 카드에 기록 되는 주님의 신전에서 받는 각 개인의 이름도 넣어서 알파벳 순서로 신전 기록 색인국(T. I. B)이라고 부르는 곳에 비치한다. 이 서류철에는 3천6백만장 이상의 카드가 들어가 있다. 이것이 이제와서는 계보위원회에서 가장 귀중한 조사도구 중의 하나가 되었다.

약 2년전 우리는 교회의 모든 회원들에게 이 중요한 서류철의 편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신전기록 색인국에서는 서류철이 되어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의 선조에 관한 자료를 그들이 찾아갈 수 있게 체계적으로 분리해 놓았다. 양식이 인쇄 되었고 신전 기록을 이용하는 사람을 위한 새로운 일이 생겨났다. 약 2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에 오십만이 넘는 개인의 이름이 유능한 젊은 여성들 가운데에서 선발된 직원에 의해서 점검되었다. 각 개인의 이름이 우리의 서류철 안에 있는지 또 우리가 그들을 위해 서류철 안에 점검을 했는지 만약 카드에서 발견되었다면 그 자료를 보내 달라는 등 우리는 하루 평균 천여장의 양식을 보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이 일을 하는데는 무료이고 우리는 신전기록을 이용하는 사람의 자료 요청에 따라 개



인 카드의 사본을 보내 준다. 그들의 요구에 가족 기록서도 포함되어 있으면 복사하여서 카드의 사본과 같이 보내 준다. 만일 여러 개의 가족 기록서를 보내는데 돈이 들면 설명서를 보낸다. 이것은 한 두장일 경우가 아니고 네장 이상일 경우에 한한다.

이 양식은 스테이크 부장이나 감독에게 무료로 보낸다. 그들은 자기 지역의 교회 발간물 보급소를 통해 요청한다. 회원이 양식을 다 쓰면 계보위원회로 즉시 보내지고 위원회의 회답이 곧 회원들에게 전해진다.

계보 위원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유타주 84111 솔트 레이크시
 남 중신가 107

색인 카드와 기록서 사본 청구서

아래 빈란에 주소 성명을 정확히 기입해 주십시오.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 대한 자료를 가능한 한 많이 기록하십시오.

성 _____

이름 _____

출생지 _____

결혼일 _____ 남편(아내)이름 _____

사망일 _____

부친이름 _____

결혼전 모친 이름 _____

말일성도 _____ 말일성도 _____
 칩 레일 _____ 엔다우먼트일자 _____

재혼 여부 _____

이 사람과의 관계

사본을 원하는 기록의 형태에 표를 하십시오. (후면 주의 사항 참조)

- 색인 카드 (말일성도로 칩 레일과 엔다우먼트 일자 포함)
- 부모로서의 상기인 기록서 (부부로서의 인봉 칩 레일과 엔다우먼트 일자)
- 자녀로서의 상기인 기록서 (부모의 인봉 칩 레일과 엔다우먼트 일자)

색인 카드의 사본을 청구할 때는 하기 사항에 표하십시오.

- 반송 본계보 조사의 결과를 반송하겠음.
- 우송 본계보 조사의 결과를 우송하여 주기 바람.

색인 카드 전본

가	신전 맨타이	
번호	번호 9525 권 A	페이지 277
이름	엘튼—존	
생년월일	1599	
출생지	영국 사우잡프톤	
사망일	1687년 9월 22일	
부친	조지 엘튼	
모친	제인	
결혼	1622년 5월 12일	배우자 프리셀라 밀린즈
조부	엘버트 스미스 일세 5대손	
칩레일	1888년 11월 20일	대리
엔다우먼트일	1889년 1월 4일	대리
인봉 누구에게	부모에게	
주소		

이 서식은 말일성도 신전 색인카드 사본 청구와 계보위원회 기록서에서 가족전체 기록 사본을 청구하는 양식임.

인봉일은 보통으로 색인카드에서 찾아볼 수 없으나 계보기록서와 계보위원회의 참고 자료계 혹은 인정받은 계보 자료 수집가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신전기록원본의 마이크로 필름 사본에서 찾을 수 있다.

칩레일자가 색인카드나 계보기록서에 나타나지 않으면 계보위원회 중앙도서관이나 지부 계보 도서관에서 찾을 수 있는 와드나 지부 기록 원본의 마이크로 필름 사본을 통하여 찾을 수 있다.

비용은 한권을 청구할 때에만 들게되므로 돈을 보낼 필요는 없으며 청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문한 자료를 제공한 후에 하게됨.



윌리엄 제이. 클리츠로우 이세의 별세를 애도하며

세주의 신성과 물문경의 진실성,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성스러운 사명에 대하여 간증하였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웅변가로서 장로는 연극에 일가견을 이루고 있었으며, 사실 그의 말씀은 복음의 원리가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그대로 유동하게 하는 이야기였던 것이다. 특히 젊은이들은 그의 말씀 듣기를 즐겨했으며 조금만 앉아 있어도 지루해 견디지 못하는 어린 아이나 십대의 소년들도 그가 말씀할 차례가 돌아오면 귀를 기울여 열중할 정도였다.

복음에 따라 생활하면서 장로는 가정문제를 제일 선두에 놓았다. 지도자직에 부름을 받은 신권 소유자에게 권고하기를 「여러분의 첫째 의무는 가정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의 부름입니다.」 선교사를 송별하면서는 「자주 부모님께 편지할 것이며, 적어도 일 주일에 한 번씩 하여 그때가 부모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감사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말씀을 전하라.」고 당부하고는 하셨다.

클리츠로우 부부는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서로를 존경하는 사이로 유명하여 그녀가 남편을 따라 세계를 두루 여행할 때에 성도들의 눈에 비쳐 곧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두 아들과 딸, 15명의 손녀의 잇단 성공에 기쁨을 나누는 나날을 보낼 수도 있었다.

그분은 어린이를 사랑하셨다. 그들과 특별한 관계를 갖고 계신 분이다. 이 위대한 분에게 드리는 애도의 감정은 장례식에 참석한 210명의 유년협회 어린이가 모두 흰 색 옷을 입고 90분에 걸친 장례 의식이 계속되는 동안 조용하고 경건하게 앉아 있다가 장로가 가장 아껴 부르던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노래를 불렀을 때 극에 달하였다. 아름다운 목소리가 태버나클을 아름답게 울려 퍼질 때 엘든 테너 부대관장님이 추도사에서 밝힌 「이 분의 생애는 곧 세상을 향해 주는 말씀이라.」고 한 이야기를 그대로 간증하는 것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윌리엄 제이. 클리츠로우 장로의 삶의 신조는 「봉사의 부산물로 생기는 것이 행복」이라는 신념을 들 수 있겠다.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생을 즐겁게 받아들이는 태도나 정신은 그를 알았거나 혹은 그의 영향력을 직접 체험한 사람의 길잡이가 되었던 것이다. 그분은 꺼지지 않는 심판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친구거나 낯선 사람이거나를 막론하고 용기를 북돋아줄 수 있었으며 모든 사람을 다정한 미소로 맞을 수 있는 인격의 소유자였다.

클리츠로우 장로에 있어서의 행복이란 복음의 원리를 철저히 지키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기도 했다. 교회 총회에서 행하신 연설에서는 말일 성도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셨다. 「우정이 그 중 하나요, 겸손이 다른 하나요, 지도자가 품고 있는 관대한 마음이 다른 하나인데, 저는 이를 참으로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과 구별을 지어주는 것은 행복이라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분명 대회에 참석하여 영의 양식을 가득채워, 헌신하는 가운데 희열을 맛보겠다고 다짐하는듯 보입니다.

행복의 원천, 즉 인간과 하나님에 대한 봉사, 그것은 클리츠로우 장로의 맥박 속에 깊이 담겨진 것이다. 평생을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의 생활로 보내었다. 하나의 조직에 속해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었다. 타고난 지도자였다. 막중한 책임을 수반하는 직책이 그치지 않았다. 마음과 정력과 열의를 다하여 맡은 바 직책에 매진했던 것이다. 웨버 주립 대학 학생회장, 동창회장, 실업계, 간부 병원 이사, 소년단 임원, 상공회의소 소장, 라이온 클럽 회장, 이외에도 여러 직책을 거쳤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랑한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였으며, 여기에서도 충실하게 효과적으로 부름을 감당해 왔다. 12살의 어린 나이로 신권회 반주자를 필두로 신권회 정원회, 보조 조직의 교사로, 워드및 스테이크 상향회 회장단, 워드 주일학교 감독, 스테이크 고등 평의원, 스테이크 부장, 교회 총 관리 역원으로 봉사하였다. 타는듯 한 간증의 소유자로서 회원이거나 비 회원이거나를 막론하고 구

클리츠로우 장로의 약력

- 1892년 8월 21일 유타주 부리감시에서 윌리엄 제이와 안나 그레저슨 클리츠로우의 아들로 출생
- 1924년 8월 20일 안나 마리아 테일러와 쏘트레이크 신전에서 결혼
- 1941년 12월 7일 남 옥든 스테이크의 초대 스테이크 부장으로 지지 받음
- 1958년 10월 16일 12사도 정원회 보조로 성별됨
- 1968년 8월 29일
- 76세를 일기로 유타주 옥든에서 별세함



그녀의 말은 작고
 빛나지도 않으며
 번쩍이게 하지도 않으나
 그녀는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의
 기쁨이었나니
 너희는 그녀의 말을 들었어야 했으리.

무엇을 들을까?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듣는다는 것은 기계적인 행동 이상의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어떤 지식이나 이해심을 갖기 위해 주의력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어느 공과에 보니까 다음과 같은 글이 있었습니다.

「의사 소통의 가장 큰 시설은 이해력을 가지고 듣는 능력이다. 다른 사람이 말하고 있을 때 조용히 입을 닫고 자제하고 있는 것 만으로 좋은 청취자가 된다고 느끼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렇지만 귓가에 소리를 쟁쟁 울리게 하는 것과 이해심을 가지고 듣는다는 것은 커다란 차이점이 있는 것이다. 이해심을 가지고 듣는다는 것은 말하는 사람이 느끼는 것을 같이 느끼는 것이다. 그것은 말하는 사람의 신을 신고 일어서는 일이며 그가 하는 일을 보는 것이다.」

듣는 것은 행동하는 것이요, 훌륭한 청취자는 참여하며 흥미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는 자입니다.

누구의 말을 들을까?

물론 하나님 아버지, 그의 거룩하신 아들,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하겠습니다. 첫번 시현 때 아들을 소개하시면서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을 때의 일이야말로 얼마나 의미심중한 말이었겠습니까? 이 훌륭한 권고의 말씀을 무관심이나 거만 또는 불신앙과 선입관, 즉 마음이 닫혀진 태도 때문에 듣지 않았다면 그 결과는 얼마나 비극적이었을까요? 예수의 말을 들어보라는 소개의 말씀은 물론 모든 인간에게 하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야 할찌어 떨지 결정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셉에게 하신 것 같이 목소리를 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에노스에게 하신 것 같이 그 음성은 우리 마음에 울릴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사자인 예언자나 자기를 대신해서 말씀을 전할

들으라

선교부장 서 현 보

사람을 택해서서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엘리야에게 하신 것 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엘리야는 주님을 찾았으나 구름이나 바람이나 지진 속에서 찾지 못했으며 가느다란 조그만한 음성을 듣고서 찾았던 것입니다.

주님은 경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언자와 올리버와 데이비드에게 하신 것 처럼 우리에게 서로 돌아가며 경전을 읽으라고 권고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는 말씀을 듣는 귀, 활짝 열어 제친 마음, 상한 심령이 필요합니다.

말을 들어야할 대상이 또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말을 들어야하고 자녀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봉사하고 있는 사람, 우리가 섬기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야기하는 사람, 교사, 역원, 우리를 진정 사랑해 주는 이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의견과 같지 않은 사람, 목적은 같으나 방법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야 할까?

「어떻게 들어야 할까?」라는 점은 벤야민왕이 한 말을 인용하면 가장 효과적이라 생각됩니다.

너희를 명하여 이곳에 이르게 한 것은 내가 할 말을 소홀히 다루게 함이 아니요, 내게 귀를 기울여 너희 귀를 열고 듣게 함이며, 너희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함이요, 너희 심령을 열어 너희 의사로 하나님께 오묘하신 섭리를 배우게 하려함이라.」(모사이야 2:9)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이심 전심을 배우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타인의 처지에 놓고 여러분의 마음 속으로 그의 문제를 들으려고 힘쓰십시오.

참고 들으십시오. 타인을 위해서는 「서둘지 않는」시간을 가질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태도가 옳다면 5분이 라도 「서둘지 않는」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고 저울질해 보며 생각하기 위해 들으십시오. 성경에 보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잠 18:13)고 했습니다.

언제 들을까요?

말을 듣는 때는 들어 주기를 바라는 때여야 합니다. 문제를 가진 사람과 접촉해야 할 때는 그가 문제를 가진 때입니다. 간호해 줄 때는 그 사람이 아플 때입니다. 들어 줄 때는 우리의 귀와 마음과 도움을 구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관심과 사랑을 표시해 주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옛부터 내려오는 다음 격언은 우리와 모든 사람에게 교훈을 줄 것이다.

「너희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 나의 말을 들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말씀을 이달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

리차드 엘. 이반스

진리의 말씀

인간이 무엇이관대 하나님을 잇을까?

우리가 제아무리 빨리 그리고 멀리 옮겨간다 하여도 우리가 제아무리 많은 일을 행하거나 이루어 놓았다 하여도 우리는 끊임없이 목적, 의의, 확신에 대한 해답되지 않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간단한 본질적 요소, 즉 행복, 건강, 사랑하는 이, 의무, 예절, 봉사, 성실과 같은 것은 언제나 끊임없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에 알아야 할 것은 무한히 많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곁손을 더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조그마한 것을 발견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일을 어느정도 통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연, 기후, 사시절, 조수, 연령, 질병, 생명과 죽음 같은 것은 우리가 있는 재주를 다하여 말을 하고 지혜를 짜내고 부단히 진리와 궁극적인 해답을 추구한다 하여도 우리의 능력은 미미하여 그것들이 뜻하는 바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맙니다. 두 개의 세포가 어떻게 결합하였다가 분열되며, 때로는 눈이 되고, 때로는 이가 되고, 때로는 머리카락이 되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누구입니까? 씨, 풀잎, 벌레, 살아있는 단순세포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수십 세기 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깨달았거든 말할찌어다. 그 때에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 하였었느니라……광명이 어느 길로 말미암아 뻗치며……누가 폭우를 위하여 길을 내었으며 네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말의 힘을 네가 주었느냐?……내가 떠올라 날개를 펼쳐 남방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네 지혜로 말미암음이냐?…」^①누가 속 마음에 지혜를 넣어 주었겠습니까? 누가 상처를 아물게 하는 힘을 육체에 주었겠습니까? 누가 본능을 동물에게 주었겠습니까? 봄이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씨에서 싹이 나지 않는다면? 추수할 곡식이 맺지 않는다면? 인간은 많은 일을 수행했고, 많은 것을 배웠으며, 많은 것을 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자부심을 만족시켜 주기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꾀변이나 자만심에 반하여 우리는 무한하신 아버지 앞에서 여전히 아이들—즉 행복, 건강, 곁손, 사랑하는 이, 의무, 예절, 봉사, 성실 등의 모두를 필요로 하는 어린 아이들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②라는 처음의 질문에 더하여 「인간이 무엇이관대 하나님을 잇을까?」라는 질문을 하나 더 가져봅시다.

① 욥 38, 39 ② 시편 8:4

이 말씀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5분부터 600키로 싸이클의 서울중앙 방송국 제2방송에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AFKN(미군 방송)에서도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5분부터 방송되고 있습니다.